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金在淳
편집인 鄭宗澤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5 • FAX: 703-0755
인쇄처 한길기획

은행계좌번호 7500875
대체구좌 010017-31-0621565

제 229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7년 4월 15일

[1]



金희장 인사(左上), 우수지부 표창(右上), 崔松和부총장 건배(左下), 朴仁洙교수 축가(右下).

참여 열기 가득한 정기총회

23만 동문 힘 모아 겨레의 길잡이 되자

관악춘추

최근의 정부 개각명단을 보면 서울대출신 동문의 입각이 눈에 띄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15대 국회의원 의원의 과반수가 동문임을 자랑해오던 터라 이제는 명실공히 나라의 정치에 있어 단연 동문들이 주도권을 잡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

더욱이 여당대표와 국무총리 자리는 동문끼리의 배턴터치가 될 정도로 대를 이어 승계하고 있다. 과연 서울대가 인재 배출의 요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 문화 등 각계에 걸쳐 동문들의 활약이 눈부

신 것도 바람직하나 그래도 정치와 국정면에서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나라와 국민의 장래를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서울대 출신에게 중책을 잘 맡겼다는 칭찬의 소

국정 능력을 인정받자

리가 나오도록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민족의 대학으로서의 서울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두터워질 수가 있다. 만의 하나라도 「서울대 출신이 별 것 아니더라」하는 비난을 받게 되면 민족의 대학은 커녕

요직을 차지하는 숫자상의 의미밖에 없다.

요즘 대권을 둘러싸고 여당의 후보군인 九龍중에는 동문이 무려 일곱명이나 된다. 인재가 많은 것은 경하할 일이다. 그러나 누가 대권을 잡든 진정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항상 수신제가해야 한다.

지난 3월 22일 열렸던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는 바로 이러한 책임감을 인식토록 한 자리여서 매우 뜻이 깊다. 동문들이 능력을 발휘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均>

96년 결산·97년 예산안 통과... 우수지부·동문 표창도

정기총회, 朴英子동문은 작년이어 또 경품 행운 안아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22일 조선포털 그랜드볼룸에서 신입회원 환영회 겸 9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을 비롯한 본회 회장단과 상임이사,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모교 尹天柱, 高炳翊, 權彝赫 전임총장, 鮮于仲皓총장, 崔松和 부총장등 보직교수 및 동문 5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金회장은 인사말에서 『서울대인은 이 겨레의 길잡이며 희망』이라고 강조하고 『모교의 명예와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한 자세로, 보다 멀리, 보다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가자』고 역설했다.

鮮于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모교는 「열린 대학」으로서 학문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진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지부 표창에서 지방지부상은 대전지부(회장 吳

熙弼)·영동지부(회장 姜奎錫), 직장지부상은 포항공대지부(회장 張水榮)·삼부토건지부(회장 趙南煜), 해외지부상은 캐나다 온타리오지부(회장 金孝)·싱가폴지부(회장 鄭泰雄)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단과대학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李誠載 前음대 동창회장, 金範來 前수의대동창회장, 李仁子 前가정대동창회장, 李燦河경영대학원동창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尹天柱전임총장의 신입회원 환영사, 올해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한 辛敏善동문의 답사에 이어 특별히 자리를 함께한 李洪九국회의원, 李漢東국회의원, 李仁濟경기도지사 등이 동문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총회 안전심의에서 96년도 결산보고와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蔡賢九(82년 師大卒) 동문과 金珍我(고고미술학과 4년)양의 사회로 친목과 단합의 시간이 펼쳐졌다.

모교 현악4중주단, 동아리 「메아리」, 음대 朴仁洙교수의 공연으로 분위기가 고조됐으며 경품추첨을 통해 참여상(컴퓨터)에 朴英子(50년 師大卒·시인)동문, 협력상(전자키보드)에 朴鵬培(53년 師大卒·前서울고대교수)동문, 영광상(TV)에 蔡賢九동문이 각각 행운을 안았다. <경품협찬자 명단 5면>

특히 참여상을 받은 차동문은 96년 총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2년 연속 행운을 안았으며 사회를 보던 蔡동문은 영광상에 당첨되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조선포털 2층 류울립룸에서 열린 「동창회 제135차 이사회 및 재단법인 관악회 제71차 이사회」에서 동창회 9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96년도 결산안을 총회에 상정했다. 또한 재단법인 관악회 96년도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참석자들은 기타 안건으로 동창회 공식 시상 제도의 제정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내용에 따르면 모교에서 매년 개교기념일에 시상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과는 별도로 동창회에서 「참여」「협력」「영광」 3개 부분의 상을 신설,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고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유공 동문에게 정기총회에서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차기 이사회에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상정기로 결정했다. <雙>



신입회원 辛敏善동문이 답사를 했다.



鄭宗澤상임부회장이 경품을 추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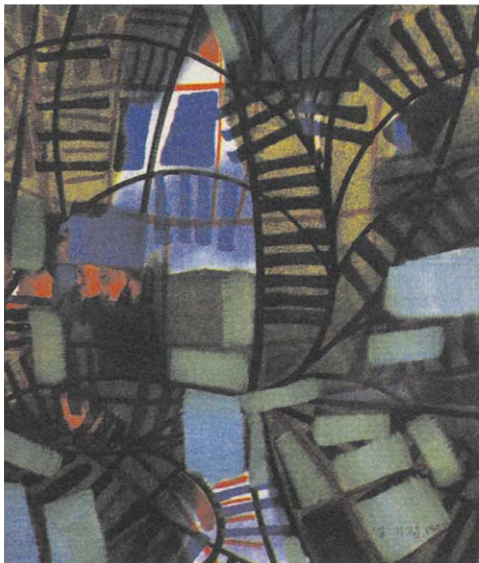
모교 노래동아리 「메아리」가 멋진 하모니를 펼쳤다.



동창회·재단법인 관악회 이사회.

미술작품

成書點作



창가에서, 72.7×60.6cm, 캔버스에 오일, 1994.

<작가 약력>

- △62년 미대 졸업
- △61년 제1회 신인예술상전
- △62년 한국미술협회전
- △66년 국전 제15회 입선
- △72년 한·일 작품교류전
- △75년 5·8동문전
- △82년 Art-Sacrée전 출품
- △84년 제94회 프랑스·양대 광당전
- △88년 훈올회 종이 작품전
- △93년 예술의 전당 전관 개관기념전
- △96년 한국여류화가회 뉴욕 전·인도품물 스케치전
- △현재 한국여류화가회 회장, 미협 자문위원, 5·8회, 훈올회 회원

주요 목차

- 서울대 동문에게 고함 9면
MQ와 CQ를 제고해야 (李炳暉)
- 동문을 찾아서 13면
高建 국무총리
- 이런 일 합니다 14면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학술연구회
- 기획탐방 15면
반도체 산업의 메카 (아남그룹)
- 정년퇴임교수 프로필 22면
- 화제의 동문 24면
오지탐험 사진작가 (俞在洪)

의대 동창회

사무국 신설 등 회칙개정



醫科大學同窓會(회장 李吉女)는 지난 3월 13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제4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李회장의 개회사, 李純炯의대 학장과 李迎雨병원장의 인사에 이어 金周一금촌의원장, 申鉉喆 과부비뇨기과의원장, 李大圭민경산업 대표, 朴鳳翥법일정형의과의원장, 李珉載고려대교수, 金宇坤안과의원장, 池英一신일병원장, 金相祐인제대교수, 申愛羅 소아과의원장, 金寬洙산부인과 의원장 등에게 유공 동문 표창을 했으며, 우수 지회로 서울특

별시 서초구, 서울대병원, 경산대 의과대학, 대전광역시지회를 비롯해 우수 동기회로 9회, 15회, 16회를 표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칙개정을 통해 일반사무 및 목적사업을 통괄하는 사무국을 신설,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임원개선을 통해 李吉女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했다.

한편 총회에 참석한 본회 李世震사무총장은 총동창회를 대표해서 李吉女회장에게 「합촌회관」 건립기금으로 1천만원을 전달했다.



본회 李世震사무총장이 李회장(左)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대학원 동창회

4월17일 총회 열기로

大學院同窓會(회장 李光魯)는 4월 17일 오후 6시 모교 교수회관 원형홀에서 창립25주년 기념 9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모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동문으로 참가회비는 없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념품이 준비돼 있다. (문의전화: 880-5161)

경대원 동창회

창립30주년 기념식

經營大學院同窓會(회장 李燦河)는 지난 2월 14일 전경련회관 19층 프라자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柳民熙·孔大植 부회장, 金瑛淑상임이사, 康鉉鎬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오는 4월 22일 오후 6시30분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창립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문의전화: 702-3366)

조소과 출신 모임

「현대공간회」 작품전

조소과 출신의 조각가 모임인 「현대공간회(회장 徐東和)」의 창립 30주년 기념전이 서초구 갤러리 「신」에서 3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열린다.

姜熙德·安奎哲 등 27명의 작품 45점이 출품되는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연배의 선후배들로 구성된 「현대공간회」의 지니온 30년을 돌아보고 한국 현대조각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구상·반추상·기하학적 추상 등 전통적인 범주에 포함되는 작품을 전시하는 1부(3월 18~31일)와 2부(4월 1~14일)를 마

치고, 3부(4월 15~28일)에서는 오브제·설치·비디오 등 다양한 재료와 매체를 이용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3부의 작품들은 조각 장르의 영역 내에 머물지 않고 작업반경을 미술이라는 넓은 범위로 확장시킨 것으로 레디메이드

오브제를 이용한다든지 비디오 화상에 영상을 띄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 등 이들 작품들의 양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 미술의 탈장르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志)

정기총회 경품 협찬해 주신 분

(접수順)

金在淳	샘터사 이사장	마이크로 컴퍼넌트	1대
鄭宗澤	충청전문대 학장	포터블 자전거	1대
鮮于仲皓	모교 총장	CD겸용 카세트	1대
崔松和	모교 부총장	진공청소기	1대
尹永錫	대우그룹회장	세탁기	1대
具平會	무역협회장	냉장고	2대
元容勳	대림통상 대표이사	압력솔	5개
李乃均	삼화도기 회장	반상기	10세트
陰龍基	현대종합목재 대표이사	의자	1개
玄在賢	동양그룹 회장	가스오븐렌지	1대
權攸久	LG전선 회장	전자렌지	3대
文大源	코리아제록스 부회장	팩시밀리	1대
朴晟容	금호그룹 명예회장	제주항공권	4매
張翼龍	(주)서광 회장	신사복	1벌
朴容晟	두산그룹 부회장	와인	20박스
姜晉佑	롯데백화점 사장	티셔츠	10벌
李世馥	나드리화장품 부사장	화장품	10세트
李龍兌	삼보컴퓨터 회장	컴퓨터	1대
李大榮	비제바노 부사장	구두티켓	5매
朴成圭	대우통신 회장	무선전화기	5대
張慶作	조선호텔 사장	조선호텔 식사권	6매
李泰元	(주)한진 사장	제주항공권(2인1조)	3매
李趙圭	(주)유공 사장	주유권	3매
申熙澈	금화기획 대표이사	구두티켓	5매
趙南煜	삼부도건 회장	경주코오롱호텔 숙박권	5매
金基炳	롯데관광 회장	해외여행 티켓	3매
卞圭七	LG상사 회장	신사복	3벌
柳遠榮	한국전자 회장	전자키보드	1대
尹世榮	서울방송 회장	TV	2대
金相廈	대한商議 회장	식용유	30세트
孫京植	제일제당그룹 회장	햄선물세트	10세트
姜信浩	동아제약 회장	자양강장제	5박스

1996년도

대 차 대 조 표

1996. 12. 31. 현재

(단위: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산		부채	
1.유동자산	(2,086,844,337)	1.유동부채	(52,370,658)
(1)당좌자산	(2,041,423,347)	1)예수금	5,875,519
1)현금과 예금	1,847,805,605	2)미지급금	46,495,139
2)미수금	19,093,950	2.고정부채	(32,645,930)
3)미수수익	172,723,792	1)퇴직급여충당금	30,145,930
4)반올어음	1,800,000	2)수입보충금	2,500,000
(2)기타유동자산	(45,420,990)	자본	
1)제세선납금	43,420,990	1.자본금	(4,161,271)
2)지급보충금	2,000,000	1)기본금	4,161,271
2.고정자산	(20,185,400)	2.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2,017,851,878)
1)비품	20,185,400	1)전기이월이익잉여금	1,550,533,088
		2)당기순이익	467,318,790
합 계	2,107,029,737	합 계	2,107,029,737

결 산 공 고

손 익 계 산 서

1996. 1. 1부터 1996. 12. 31까지

(단위: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1.매출액	(213,316,000)	13)서울대지원	45,730,000
1)회보 광고료	213,316,000	14)서울대발전기금지원	18,112,234
2.매출원가	(279,977,268)	15)관악회기금전출	504,066,000
1)간행물비	279,977,268	16)잡비	968,210
3.매출총이익	△66,661,268	17)교무목적사업지급준비금	△221,565,367
4.목적사업비	(903,070,323)	5.목적사업 차감후 이익	(△969,731,591)
1)인건비	106,659,470	6.영업외 수익	(1,668,676,779)
2)회의비	40,164,509	1)회원 회비	670,356,829
3)여비교통비	4,335,600	2)수입이자	221,565,367
4)전산화비용	23,645,401	3)찬조금	707,570,083
5)사무비	17,847,752	4)잡수입	69,184,500
6)세금과 공과	3,920,150	7.영업외 비용	(221,565,367)
7)보험료	3,249,360	1)교무목적사업지급준비금환입액	221,565,367
8)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	0	8.특별손실	(10,061,031)
9)친목사업비	88,861,916	1)고정자산처분손실	10,061,031
10)지원사업비	73,964,711	9.법인세차감전이익	(467,318,790)
11)조직강화비	189,501,047	10.법인세등	
12)차량유지비	3,609,330	11.당기순이익	(467,318,790)

위와 같이 공고함

1997. 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金讚淑 특지연구저술비

白基碩교수에게 1천만원 전달



좌로부터 金光男, 金在淳, 金讚淑, 鄭宗澤, 白基碩, 金榮國, 李炯均등문.

金讚淑(60년 齒大卒·치대동창회장)청아치과병원장은 지난 3월 12일 프레센타 19층 석류실에서 본회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을 비롯해 본보 金榮國, 孫一根, 李炯均, 金仁圭 논설위원, 모교 金光男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金讚淑 특지연구저술비」수여식을 가졌다. 金동문은 지난해 7월 25일 출

연한 1억원을 본회에서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8백만원과 추가로 2백만원을 더해 모교 치의학과 白基碩(70년 齒大卒)교수에게 1천만원을 전달했다. 白교수는 이날 전달받은 특지연구저술비로 「연령증가에 따른 흰 쥐 삼차신경주감각핵에서의 신경연접구조의 변화」를 연구하게 된다.

본회 「일반연구저술비」

교수 6명에게 6천만원 지급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2월 25일 「일반연구저술비」로 모교 교수 6명에게 각각 1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지급했다. 수혜대상과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趙東一교수(세계문학사의 이론: 공동어문학과 민족어문학의 관계), 중어중문학과 徐敬浩교수(중국소설 발전사)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李春吉교수(한글을 읽는 시선의 움직임) △법과대학: 사법학과 李好挺교수(영국 계약법 연구)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曹昌燮교수(독

일현대문학-자연주의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독일 현대문학), 사회교육과 曹永達교수(한국 중등학교 교실수업의 이해: 경제수업의 조직과 구조)

ACAD 동창회

특별강연회 가져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朴寬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7시30분 하얏트호텔 리젠시룸에서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柳夏夏의무부장관이 참석,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志)



좌로부터 다섯번째 金南千총무, 尹虎英회장.

캐나다 온타리오 지부

새 회장에 尹虎英등문

캐나다 온타리오支部同窓會(회장 金孝)는 지난 1월 25일 1백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겸 신년모임을 개최했다.

단과대학별 장기자랑, 흥겨운

춤 등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만료된 金희장 후임으로 尹虎英(63년 法大卒)동문을 선출했으며 총무에 金南千(61년 法大卒)동문을 선임했다.

광주·전남 지부

신입회원 환영회 및 정총 개최



광주·전남支部同窓會(회장 吳炳文)는 지난 20일 무등산 관광호텔에서 신입회원 환영회 및 9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李乃均수석부회장, 鄭斗采남구청장을 비롯해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했으며 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창

회 활성화를 위해 동문들의 힘과 관심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어 李洪基 KBS광주총국장의 신입회원 환영사와 宋彥鍾 광주시장의 축사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만찬을 함께 하며 동창회 활성화 방안과 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아리조나 지부

朴陽世회장 선출

아리조나支部同窓會(회장 李洪錫)는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개선을 통해 신입 회장단을 새로 선출했다.

신임 회장에는 朴陽世(52년 藥大卒)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부회장에 李準相(61년 工大卒), 이길하(92년 工大卒)동문을 선임했다.

한편 李洪錫(53년 工大卒), 吳玟煥(62년 工大卒)동문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AMP 동창회

조찬강연회 개최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孫京植)는 지난 3월 4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崔禹錫삼성경제연구소장이 참석, 「우리 경제의 전환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금속공학과

4월18일 정총 열어

금속공학과동창회(회장 張炳洙)는 오는 4월 18일 오후 7시 논현동 소재 「만리장성」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전화: 880-7085)

의대 15회

수상집「回甲人生」펴내

의대15동기회(회장 朱興在)는 최근 졸업 35주년을 맞아 회원들의 수필·시 등을 모아 기념 수상집「回甲人生」을 펴냈다.

1996년도

대 차 대 조 표

결 산 공 고

손 익 계 산 서

1996. 12. 31. 현재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 산		부 채	
I. 유동자산	(2,499,650,027)	I. 유동부채	(860,882,870)
(1) 당좌자산	(2,481,690,617)	1. 미지급금	2,674,100
1. 현금	10,829,641	2. 예수금	8,947,870
2. 예치금	2,030,282,731	3. 관리비예수보증금	1,793,000
3. 미수금	33,683,690	4. 임대보증금	847,467,900
4. 미수익	406,894,555	II. 고정부채	(303,309,541)
(2) 기타유동자산	(17,959,410)	1. 퇴직급여충당금	15,117,345
1. 제세전납금	17,959,410	국면연금퇴직전환금	3,520,800
II. 투자와 기타자산	(2,584,672)	2. 지급준비금	0
(1) 기타자산	(2,584,672)	3. 교육목적사업지급준비금	291,712,996
1. 전화가입권	2,584,672	부 채 총 계	1,164,192,411
III. 고정자산	(1,557,751,823)	자 본	
(1) 유형고정자산	(1,557,751,823)	I. 자본금	(713,234,880)
1. 토지	655,715,410	1. 기본금	713,234,880
2. 건물	1,077,258,031	II. 자본잉여금	(122,573,978)
감가상각충당금	306,676,491	1. 기본잉여금	122,573,978
3. 구축물	347,831,313	III. 이익잉여금	(2,059,985,253)
감가상각충당금	261,138,906	1. 당기발매처분이익잉여금	
4. 기계장치	74,222,072	가. 수계환전기이월이익잉여금	1,591,456,752
감가상각충당금	65,211,040	나. 당기손익	468,528,501
5. 차량과 운반구	18,400,960	자 본 총 계	2,895,794,111
감가상각충당금	5,144,822		
6. 공구기구와 비품	68,087,400		
감가상각충당금	45,592,104		
자 산 총 계	4,059,986,522	부채와 자본총계	4,059,986,522

1996. 1. 1부터 1996. 12. 31까지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 매출액		18. 청소비	2,491,690
1. 임대수입	184,577,200	19. 지급수수료	3,521,101
2. 유저수입	132,359,455	20. 목적사업비	0
II. 관리비		21. 잡비	2,365,340
1. 급료	87,855,080	III. 영업이익	△18,067,957
2. 상여금	23,050,075	IV. 영업외 수익	
3.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7,792,105	1. 동창회전입	504,066,000
4. 복리후생비	5,316,030	2. 지급준비금환입액	0
5. 여비교통비	177,000	3. 교육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0
6. 접대비	3,763,000	4. 수입이자	256,311,299
7. 통신비	4,198,360	5. 잡수입	215,670
8. 수도광열비	36,360,374	V. 영업외 비용	
9. 세금과 공과	34,595,260	1. 교육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73,796,506
10. 감가상각비	69,783,354	2. 잡손실	200,005
11. 수선비	31,408,200	VI. 경상이익	468,528,501
12. 보험료	3,911,451	VII. 특별이익	0
13. 차량유지비	2,558,000	VIII. 특별손실	0
14. 도서인쇄비	480,000	IX.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68,528,501
15. 사무비	4,774,842	X. 법인세등	0
16. 소모품비	10,603,350	XI. 당기순이익	468,528,501
17. 계수당	0		

위와 같이 공고함 1997. 3.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 金在淳

음대 동창회

신임 회장에 李南洙동문



音樂大學同窓會(회장 李誠載)는 지난 3월 1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鄭回甲명예회장, 李成均학장을 비롯해 8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회장에 李南洙수석부회장을 선출했다.

또한 李明學, 金正圭감사를 연임시키고 남은 임원 선출은 회장단에 일임했다.

신임 李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애써오신 전임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발전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同會는 이날 동창회 소식지 발간과 회비 징수 캠페인, 모교 방문의 날 제정 등 동창회 사업을 논의하고 97년도 회원명부를 배포했다.

간호대 동창회

「가정간호과정」 준회원 영입



선배들이 신입회원에게 졸업메달을 달아주었다.

看護大學同窓會(회장 楊銀淑)는 지난 3월 14일 모교 강당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겸한 신입회원 환영식을 개최했다.

楊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창회의 역사나 연륜에 비해서

회원들의 열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간호대학 건물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는데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同會는 이날 신입회원에게 졸업메달과 화환을 전달하고

96년도 사업 및 결산·감사보고를 마친 후, 97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어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楊銀淑회장을 재선임하고 상임이사에 宋美順동문, 회계에 宋玉子동문, 감사에 李금라·徐英卿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同會는 97년도 사업으로 오는 10월에 간호대 창립 90주년 행사를 비롯한 모교 방문 행사, 아우회 등을 개최하기로 하고 회원관리 전산화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가정간호과정 수료자를 준회원으로 영입하고 대학원 졸업자를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격상시키는 등 회칙개정을 했다.

건축학과

5월 24일 체육대회

건축학과동창회(회장 李商淳)는 최근 모교 교수회관에서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가졌다.

李회장은 이날 재학생 6명에게 훌륭한 인재가 되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총 2백5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同會는 오는 5월 24일 오후 3시부터 모교 학군단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전화: 880-7050)

공업화학과

「홈페이지」 개설

공업화학과동창회(회장 金石中)는 최근 홈페이지를 열었다.

同會는 앞으로 동창회 관련 소식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며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주소: 서울대사이트(<http://www.snu.ac.kr>)에서 Chemical Technology 또는 직접 <http://ultract.snu.ac.kr>)

치대 31회

졸업20주년 기념 제주여행



치대31동기회(회장 朴仁出)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제주도에서 부부동반으로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金光男치대학장은 축사를 통해 『31회 동기들이 모교뿐만 아니라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애써주길 바란다』고 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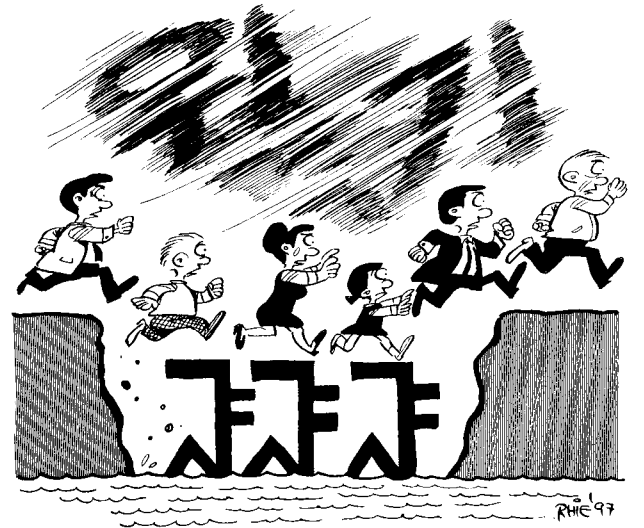
했다.

참가자들은 골프대회, 바둑대회, 주부가요열창, 제주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동기들간의 우의를 다지고 모처럼 진료실을 떠나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한편 同會는 치대발전을 위해서 일천만원의 발전기금을 모교에 출연했다. (元)



李元馥



Bridge over troubled water...



문리대 61회

동송동 「마로니에클럽」 열어

61년 문리대에 입학한 동기들이 지난 3월 10일 동문들의 휴식공간으로 「마로니에 클럽」을 열었다.

金順吉(영모다(주)회장)준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어려서 본 영화 「로맨스 빠빠」를 다시 보게 됐는데 영화속에서 김승호씨가 맡은 아버지보다 내가 나이를 더 먹은 것에 놀랐다』고 말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가 그리워 「마로니에 클럽」을 열었으니 젊은

날에 미쳐 나누지 못한 情理를 새롭게 하자』고 제안했다.

61학번을 전후로 동송동 대학가 마로니에 나무를 기억하는 동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로니에 클럽」은 동송동 시절의 사진과 바둑·장기판이 준비돼 있고 모든 음료와 주류가 실비로 제공된다. (주소: 강남구 논현동 234-8 석상빌딩 2층(역삼역 차병원 뒤). 전화: 546-0061)

약대 31회

졸업20주년 기념 앨범 제작



약대31동기회(회장 鄭鍾漢)는 지난 3월 1일 리츠칼튼호텔에서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2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본래 행사는 당일 마치고로 했으나 서로 헤어지기 아쉬워 거의 모든 회원들이 밤을 지새며 끈끈한 동기의 정을 나눴다. 또한 朴萬基학장에게 발전기

금 일천만원을 전달하고 기념패를 동기들에게 배포했다.

한편 同會는 학창시절 사진과 회원들의 사진을 묶어 기념앨범을 제작중인데 4월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상대 19회

동창회 사무실 개방

상대19동기회(회장 朴成錫)는 최근 文憲相수출입은행장, 金元吉의원 등 3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 사무실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이 사무실은 千男立동문의 사무실중 일부를 지원받아 사용하게 된 것으로 吳千植동문을 비롯한 여러 동기들이 집기 및 비품 등을 흔쾌히 협찬해 꾸며졌다.

同會는 앞으로 사무실을 동기들의 사랑방으로 전면 개방하고 동창회 활성화의 중심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화: 598-4151)

의대 30회

徐在烈회장 선임

의대30동기회(회장 安秉文)는 지난 3월 14일 정기총회를 갖고 신입회장에 徐在烈(내과의원장)(사진)동문을 선출했다.



同會는 이날 부회장에 高永瑾(피부비뇨기과의원장)동문, 총무에 金重崑(모교교수), 鄭勝基(소아과의원장)동문을 선임하고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결산보고 및 올해의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계동문 31회

공학·설계학 함께 사은회

기계동문31동기회(회장 姜武振, 朴世馨)는 최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은사와 모교교수, 동기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20주년 기념 사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계공학과와 기계설계학과가 연합하여 사은

회를 개최함으로써 후배들이 전통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동창회를 완전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同會는 이날 순금으로 만든 거북을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회원 주소록을 배포했다.

ROTC 동창회

새 회장에 鄭助英동문 취임



ROTC동창회(회장 權東烈)는 지난 3월 19일 하얏트호텔에서 1백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鄭助英(64년 文理大卒·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상임부회장)동문(사진)을 회장에 선출했다.

鄭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ROTC란 문무를 겸비한 지도자의 집단으로 국가안보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

을 위해 소명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먼저 동창회를 활성화시켜 나라에 보탬이 되고 보람있는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체육교육과

후배에게 장학금 지급

체육교육과동창회(체우회 회장 辛東一)는 지난 3월 6일 모교 체육관에서 교수와 전체 학생이 모인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同會는 이날 인재·유천 장학금 수혜자 1명과 체우회 장학금 수혜자 2명 그리고 축구·농구·야구 등 운동부별로 10명의 재학생에게 총 1백9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元)

연말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단일후보를 내자는 움직임과 함께 단일 후보를 성사시키는 전제조건으로 내각제 개헌의 공동추진이 논의되고 있다.

정당이 집권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집권을 위해 연합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각제 개헌추진 대목에서는 말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강정략

자민련은 원래 내각제를 당론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회의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金大中 총재도 대통령제 지지자임을 공언해 왔다. 다시 말하면 국민회의와 金총재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제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판단을 黨의 정강정략과 소신으로 삼아왔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金총재와 국민회의가 그동안 한번도 자기들의 판단에 대한 수정이나 懷疑를 제기함도 없이 내각제로 돌아선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느리나무광장



宋 鎭 赫

중앙일보 논설위원실장

개헌 논의의 正道

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제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권을 잡자니 자민련과 연합을 해야 하고 연합을 하자니 부득이 내각제를 지지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닌가.

국민회의가 내각제를 지지하려면 먼저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아냈다고 말하는 것이 순서다. 그동안은 대통령제가 더 적합한 줄 알았는데 실은 그런 판단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틀렸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각제가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내각제를 바탕으로 자민련과 연합을 추진한다고 말해야 사리에 맞다. 그렇지 않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제도 좋고 내각제도 좋다는 식이라면 정당이나 정치가로서의 기본자세가 의심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가 뭐냐에 대한 판단과 소신도 없이 정권만 잡겠다는 정당이나 정치가를 국민이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파간의 흥정거리 될 수 없다

헌법이란 나라의 기본이다. 권력구조는 국정운영의 근본이 되는 제도다. 이런 기본이 되는 문제를 특정 세력의 집권전략으로 이리저리 고치자는 발상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각제도 좋은 제도다. 대통령제가 못 갖는 장점이 많다. 그러나 그런 좋은 제도도 정략이나 정파간의 흥정대상으로 삼을 경우 국민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오히려 좋은 제도의 이미지만 그칠 뿐이다.

(본보 논설위원)

서울대 동문예고함

MQ와 CQ를 제고해야

6·25 동족상잔의 폐허에서 불사조같이 솟아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까지 불과 30여년.

이러한 고속경제성장과 산업화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란 절대명제하에 온 국민이 땀과 땀 피땀어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가능했다.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외국 주요인사들은 나날이 성장하는 우리 모습과 역동성(Dynamism)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남달리 빨리 이런 기적을 성취하기까지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릴 여유가 별로 없었다. 과연 고도성장

은 부작용없이 이룩할 수 없는 것인지?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사회의 혼란은 민주정치에 익숙하지 못해 각자의 책임과 의무는 망각하고 利己와 利益 또는 國益의 분간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데 연유한 것이 아닐까?

만연된 도덕 불감증

정경유착을 위시하여 부정부패와 부조리의 만연, 안전·환경 심지어 도덕 불감증 등 열병을 앓고 있다.

이제는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이념의 부재로 인한 정치영도력(Charisma)의 약

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다수 국민의 교육열과 높은 지능(IQ), 근면한 우리 국민성 때문에 이나마 사회·경제가 지탱되고 있다고 본다.

오늘 우리는 삶의 질을 높여 복지사회 건설을 이룩할 수 있으나 하는 정치·사회·경제의 기로에 서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중추적 위치에 바로 23만 서울대 동문이 있기에 우리들의 책임은 크다고 할 것이다.

「한강기적」 절실하다

현대적 관점에서 건전한 지

도층을 판단하는 네가지 요건으로 IQ, EQ, MQ(Moral Quotient), CQ(Charisma Quotient)를 꼽는다. 열강에 끼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MQ와 CQ의 저하이다. 도덕성이 제고되어야만 정치·사회·경제의 정의가 구현되고 올바른 정치이념을 가진 정치지도자의 영도력이 강력히 발휘될 수 있으며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하여 복지국가건설과 번영을 누릴 수가 있다.

MQ나 CQ를 끌어올리는 것은 남의 탓이 아닌 자기자신의 도덕성·정의관과 사명에 달려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더불어



李炳暉(54년 工大卒)

태평양원자력協 회장

화합할줄 알고 남을 밀어 키워 줄줄 아는 이웃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요즈음 어려운 형편을 전화위복 삼아 MQ와 CQ를 제고토록 노력한다면 21세기에는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통일된 복지한국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정

수상

▲**奇昌德**(48년) 齒大卒·치과의원장=최근 동양권에서는 세번째로 「P·F·A엘머상」 수상자로 선정됨.

▲**鄭雲朝**(52년) 農大卒·조영사회장=최근 「자랑스러운 순창인」에 선정되어 수상함.

▲**朴晟容**(50년) 文理大入·금호그룹 명예회장·本會副會長=최근 「올해의 신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됨.

▲**金善弘**(55년) 工大卒·기아그룹 회장·本會副會長=최근 한국공학기술상 시상식에서 경영·기술부문 대상을 받음.

▲**車載璇**(57년) 師大卒·前인천교대 교육대학원장=최근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음.

▲**韓昇洙**(63년) 行大院卒·국회의원=최근 미국 컬럼비아대 법대와 부설 파커국제 연구소가 공동 제정한 「국제분야 공로 메달」의 첫 수상자로 선정됨.

▲**陳大濟**(74년) 工大卒·삼성전자 LSI본부 대표이사 부사장=최근 한국공학기술상 시상식에서 「젊은 공학인상」을 받음.

▲**崔鉉烈**(3기 AMP·엔케이그룹 회장)=최근 「올해의 훌륭한 기업가상」을 받음.

▲**李鍾秀**(41기 AMP·LG산전 대표이사)=최근 제31회 「조세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음.

이동·선임

▲**金道昶**(47년) 法大卒·前법제

처장·冠岳會理事)=최근 법조인 양성 및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사법연수원 운영위원장에 위촉됨.

▲**韓仁洙**(51년) 師大卒·인천대 명예교수=최근 GD(Good Design)기획 고문에 취임함.

▲**盧信永**(54년) 法大卒·롯데복지재단 이사장=최근 고려대학교 석좌교수에 임용됨.

▲**尹海重**(55년) 音大卒·前한양대교수=최근 한국작곡가협회 회장에 선출됨.

▲**金英錫**(56년) 商大卒·흥원제지 상임고문=최근 포항제철(주) 사외이사에 파선됨.

▲**李宗勳**(57년) 工大卒·한전 사장·本會副會長=최근 한국엔지니어클럽 제12대 회장에 재선출됨.

▲**鄭然世**(57년) 工大卒·한국선급 회장=최근 한국선급엔지니어링 대표이사에 취임함.

▲**張炳圭**(57년) 法大卒·두원공전학장=최근 중부대학교 제2대 총장에 취임함.

▲**金瓊元**(54년) 法大入·사회과학원장=최근 고려대 석좌교수에 임용됨.

▲**朴錫鍾**(58년) 法大卒·거평그룹 부회장=최근 거평그룹 유통사업 총괄회장으로 승진함.

▲**朴椿浩**(59년) 文理大卒·국제해양재판소 재판관=최근 고려대 석좌교수에 임용됨.

▲**鄭根謨**(59년) 文理大卒·前과기처장관=최근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이사장에 취임함.

▲**金乃誠**(59년) 文理大卒·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최근 외무부 駐 태국대사에 임명됨.

▲**金英勳**(59년) 法大卒·송실대 교수=최근 송실대학교 대학원장에 취임함.

▲**裴在演**(59년) 法大卒·대구대 교수=최근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장에 취임함.

▲**張宗澤**(59년) 師大卒·前교육행정연수원장=최근 서울고등학교 교장에 취임함.

▲**李東翊**(60년) 文理大卒·외교

안보연구원 연구위원)=최근 외무부 駐 포르투갈대사에 임명됨.

▲**黃海根**(60년) 工大卒·동일기술평사 대표이사=최근 한국건설감리협회 제2대 회장에 선출됨.

▲**曹章煥**(60년) 農大卒·단국대 천안캠퍼스 부총장=최근 단국대학교 신임총장에 취임함.

▲**李翊燮**(60년) 文理大卒·국립국어연구원장=최근 외래어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됨.

▲**尹圭信**(60년) 法大卒·제일은행상무=최근 제일은행 전무로 승진함.

▲**任昌周**(60년) 師大卒·상명대교수=최근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장에 취임함.

▲**李相哲**(60년) 商大卒·前은형연합회장=최근 국민신용카드(주) 초대 회장에 선임됨.

(11면에 계속)

“학과 특성화로 취업 확대”

충청전문대 鄭宗澤학장

지난 3월 27일자로 제15대 충청전문대학 학장에 취임한 鄭宗澤(58년 法大卒·본회 상임부회장) 前환경부장관(사진)을 만나보았다.

—취임 소감은.

『장관직을 물러나면서 이제 모든 욕심을 버리고 환경운동과 고향발전을 위해 남은 생을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1백여개 전문대학중 몇개 안가는 종합전문대 학장에 취임하니 분에 넘칩니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계와의 인연은.

『저는 원래 교직으로 출발했습니다. 법대 재학시 1년여간 진천 광혜원 중고등학교

에서 사회, 영어, 독어를 가르쳤지요. 40년만에 원점으로 되돌아온 감회가 깊습니다. 충북도지사 시절에는 교육위원회 일을 함께 맡아 보기도 했지요. 하지만 전문가에 비하면 학덕이나 경험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이사장님, 전임학장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조언을 적극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첫째, 전국 전문대중 제일가는 대학, 기업체에서 오히려 졸업생을 데려가겠다고 나서는 그런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각 기관 및 기업체 등과 협조해 장학금 및 발전기금 유치, 졸업생 취업 등을 확대해 나

가는 「세일즈맨 학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성실, 협동, 창의의 창학이념을 받들어 학과장, 각 보직교수를 중심으로 책임과 권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鄭學장은 「21세기 교육계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대학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각 학과를 특성화해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뜨거운 열의를 보였다.

“전공별 동창회 조성할 터”

음대동창회 李南洙회장

지난 3월 1일 열린 음악대 학동창회 정기총회에서 李南洙(53년卒·모교 명예교수)동문(사진)이 李誠載회장의 후임으로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취임 소감은.

『솔직히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회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믿고 맡겨 주셨으니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발전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은.

『모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서울예고, 이화여고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모교 음대에서 강사생활도 했지요. 중앙방송교향악단 부지휘자, 중앙방송합창단 지휘자로 10년간 활약하다 미국 유학길에 올

랐습니다. 맨하탄 음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68년에 귀국, 95년 정년퇴임하기까지 모교교수로 봉직하며 3년간 학장직을 겸했습니다. 그동안 국립교향악단 전임지휘자로 활약하면서 그 외의 교향악단, 오페라단의 객원지휘를 계속했습니다. 현재는 모교 음대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임기동안 회원명부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창회 기금을 확보하고 전공별로 동창회를 만들어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동문들간의 활발한 정보교환을 통해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유지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동문들에게 한말씀.

『자랑스럽고 보람된 동창회가 되도록 상호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동창회가 확실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애정과 참여를 바랍니다』

李회장의 가족은 서울대 가족이자 음악가족이다. 부인 金容汾씨는 62년 모교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맨하탄 음대 대학원을 나와 현재 단국대 음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장녀 李주현양도 94년 모교 음대 성악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현재 서울예술종합학교 조교로 활동중이다. (志)

(10면에 이어)

▲朴龍安(61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최근 유엔 해양법 대륙붕한계위원회 초대 위원에 당선됨.

▲洪斗杓(61년) 文理大卒·한국방송공사 사장·本會副會長=최근 연합통신 비상임이사에 선임됨.

▲柳時烈(61년) 法大卒·前한국은행 부총재=최근 제일은행 은행장에 취임함.

▲白忠鉉(61년) 法大卒·모교교수=최근 법조인 양성 및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됨.

▲安秉勳(61년) 法大卒·조선일보 편집인=최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금이사장에 선임됨.

▲鄭勳甫(61년) 法大卒·풍산 대표이사=최근 풍산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함.

▲張滿花(61년) 商大卒·서울은행 전무=최근 서울은행 은행장으로 승진함.

▲趙英吉(62년) 文理大卒·前한

국관광공사 사장=최근 순천향대학교 관광학과 객원교수에 취임함.

▲金光雄(62년) 法大卒·모교교수=최근 한국공공정책학회 회장에 선출됨.

▲李萬秀(62년) 商大卒·교보생명 부사장=최근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함.

▲崔然宗(62년) 商大卒·은행감독원 부원장=최근 한국은행 부총재에 임명됨.

▲姜敏求(62년) 行大院卒·유성개발회장·行大院同窓會會長=최근 한국기독교실업인회 제9대 전국회장에 선출됨.

▲金鮮東(63년) 工大卒·쌍용정유사장=최근 한국해양유류오염방제조합 이사장에 선출됨.

▲高在勳(63년) 商大卒·서울은행상무=최근 서울은행 감사에 선임됨.

▲朴龍二(63년) 商大卒·제일은행상무=최근 제일은행 감사에 선임됨.

▲張喆薰(63년) 商大卒·조흥은행전무=최근 조흥은행 은행장으로 승진함.

▲許鍾旭(63년) 商大卒·조흥은

행상무=최근 조흥은행 전무로 승진함.

▲朴元勳(64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최근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제5대 회장에 선출됨.

▲許永燮(64년) 工大卒·녹십자 회장=최근 제약협회 회장에 추대됨.

▲李進(64년) 文理大卒·前환경부차관=최근 웅진전문대학 학장에 취임함.

▲盧莊愚(64년) 法大卒·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장=최근 국내 유일의 단설대학원인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학장에 취임함.

▲黃昌益(64년) 法大卒·산업설비금융부장=최근 수출입은행 이사에 취임함.

▲林繁藏(64년) 師大卒·모교교수=최근 한국체육학회 제15대 학회장에 취임함.

▲金旻(64년) 音大卒·모교교수=9월 폴란드 루브린에서 개최되는 비니아프스키 국제청소년음악콩

쿠르 심사부위원장에 위촉됨.

▲韓明熙(64년) 音大卒·서울시립대교수=최근 국립국악원장에 선임됨.

▲河光彥(64년) 師大卒·MBC시청자국장=최근 원주MBC사장으로 승진함.

▲俞炳印(64년) 商大卒·조흥은행상무=최근 조흥은행 감사에 선임됨.

▲李文熙(65년) 工大卒·태경농산 부사장=중국 청도 농심식품 유한공사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都俊鎬(65년) 文理大卒·조선일보 부국장=최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남북교류위원장에 선임됨.

▲李年憲(65년) 文理大卒·충주MBC사장·本報論說委員=최근 MBC 제작이사로 자리를 옮김.

▲鄭逸和(65년) 文理大卒·한국일보 논설위원=최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국제위원장에 선임됨.

▲金英大(65년) 法大卒·대성산업사장·本會副會長=최근 대성산소 대표이사 부회장을 겸직하게 됨.

▲李千洙(65년) 法大卒·前교육부차관=최근 순천향대학교 총장에 취임함.

▲安繁一(65년) 法大卒·감사원 제1사무차장=최근 감사위원에 임명됨.

▲崔熙善(65년) 師大卒·인천교대교수=최근 인천교육대학교 제2대 총장에 취임함.

▲郭治榮(65년) 商大卒·데이콤 부사장=최근 (주)데이콤 사장으로 승진함.

▲曹海寧(65년) 法大卒·前총무처장관=최근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제12대 회장에 선임됨.

▲朴容晟(65년) 商大卒·두산그룹부회장·本會副會長=최근 한국마케팅연구원 회장에 선출됨.

▲鄭熙武(65년) 商大卒·한화증권사장=최근 충청은행 전무로 자리를 옮김.

▲朴有光(66년) 法大卒·한국개발연구원 고문=최근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에 선임됨.

▲朴英俊(66년) 商大卒·공인회계사·冠岳會監事=최근 연합통신 감사에 재선임됨.

▲李龍萬(66년) 行大院卒·前재무부장관=최근 신한종합연구소 회장에 취임함.

▲金裕榮(67년) 工大卒·前공업진흥청장=최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설립 추진본부장(총장내정자)에 선임됨.

▲朴容相(67년) 法大卒·서울고법 부장판사=최근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에 임명됨.

▲朴載俊(67년) 商大卒·한국은행 뉴욕사무소장=최근 한국

(12면에 계속)

(11면에 이어)

은행 이사에 임명됨.

▲權五得(68년 文理大卒·前인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최근 의료보험연합회 상임이사에 선임됨.

▲金種湜(69년 文理大卒·경향신문 뉴스메이커주간)=최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심사위원장에 선임됨.

▲金鍾國(70년 農大卒·두산씨그림 전무)=최근 두산씨그림(주)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함.

▲李秀一(70년 法大卒·前경찰대학장)=최근 감사위원에 임명됨.

▲成書鶴(70년 商大卒·영진무역 사장)=최근 영진무역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함.

▲趙東成(71년 商大卒·모교교수)=최근 한국전략경영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임됨.

▲金明錫(72년 文理大卒·세프라인 사장)=최근 한국금속양식기공업협회 회장에 연임됨.

▲秋浩錫(73년 商大卒·대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최근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장에 선임됨.

▲朴柱鐸(74년 商大卒·수산그룹회장·冠岳會監事)=최근 대동조선 회장을 겸직하게 됨.

▲許日燮(77년 經營大卒·녹십자 부사장)=최근 녹십자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함.

▲俞弘濤(80년 人文大卒·영남대교수)=최근 영남대학교 박물관장에 취임함.

▲柳 津(83년 人文大卒·풍산 부사장)=최근 풍산(주)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함.

▲安文宅(84년 大學院卒·증권관리위원회 외부감사심의위원)=최근 증권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승진함.

▲金仁範(89년 工大卒)=최근 김포전문대 교수로 부임함.

▲金勝猷(19기 AMP·하나은행 전무)=최근 하나은행장으로 승진함.

▲梁在範(25기 ACAD·삼화임산고문)=최근 신한국당 정책자문위원에 임명됨.

▲李重孝(27기 AMP·교보생명 사장)=최근 교보생명 부회장으로 승진함.

▲金錫喜(32기 AMP·삼이실업회장)=최근 대한민국駐 말리 공화국 명예총영사에 취임함.

▲鄭鎬根(33기 AMP·前합참의장)=최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총장에 임명됨.

▲金在祐(37기 ACAD·前삼성중공업 부사장)=최근 벽산건설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함.

▲梁修濟(39기 AMP·거평시그네틱스 사장)=최근 거평시그네틱스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함.

▲安福鉉(41기 AMP·삼성항공 대표이사)=최근 한국광학기협회장에 선임됨.

▲白樂院(51년 醫大卒·인제대 총장)=최근 동명정보대학에서 열린 「제1회 부산 자원봉사 지도자대회」에 참석, 「자원봉사자와 시민의식」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함.

▲盧隆熙(52년 法大卒·정주장학회이사장)=최근 15명의 대학생에게 총5천9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함.

▲林錫珍(56년 文理大卒·한국해럴드학회이사장)=최근 「칸트의遺稿에 나타난 절대관념론의 맹아」란 제목으로 발표회를 개최함.

▲孫章純(58년 文理大卒·소설가)=최근 중년의 세대가 일상적 삶에서 일탈하려는 욕망과 허무를 다룬 창작집 「두 개의 얼굴」(문화공간刊)을 펴냄.

▲張得成(58년 文理大卒·플랜



인터내셔널 한국위원회 개발실장)=최근 암스텔담에서 열린 국제본부 마케팅회의에 참석하고 베트남 한국인 3세 지원방안 협의차 호치민시를 방문함.

▲李楠永(62년 文理大卒·모교철학사상연구소장)=최근 李龍兌 삼보컴퓨터회장을 초청, 「정보화 시대의 한국적 삶」이란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함.

▲成耆點(62년 美大卒·한국여류화가회장)=4월 15일부터 22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5월 3일부터 11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각각 창립25주년 기념 「한국여류화가회전」을 개최할 예정임.

▲曹永建(62년 法大卒·한국경제사회학회이사장)=최근 모교에서 「한국 자본주의와 21세기의 정치경제학」이란 주제로 창립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함.

▲卞柱仙(64년 師大卒·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本會副會長)=최근 종교지도자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함.

▲朴永寬(64년 醫大卒·부천세종병원장)=최근 민간병원으로서는 최초로 심장수술 일만사례를 돌파하여 기념식을 가짐.

▲表相基(65년 工大卒·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최근 클라우드 폴러스 주한 독일대사와 만나 한·독 양국간 교역증진 방안을 논의함.

▲洪羅喜(67년 美大卒·삼성문화재단이사장)=최근 음악영재에게 명곡을 무료로 빌려주는 「삼성악기은행」을 설립함.

▲曹相鎬(67년 行大院卒·창조장학회이사장)=최근 강북대성학원에서 97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가짐.

▲成政宣(68년 文理大卒·대학사회복지연구소협의회 대표)=최근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도입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李蕙柱(73년 美大卒·섬유예술가)=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바르셀로나 국제아트페어에서 Felt작품과 섬유프린트 작품을 전시할 예정임.

▲柳元錫(75년 法大卒·前서울지법 형사단독판사)=최근 변호사 개업. (주소·서초구 서초동 1714의35 서울빌딩 402호. 전화·536-7400)

▲李珉柱(80년 美大卒·화가)=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국제아트페어에 「허와실」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전시할 예정임.

▲柳炳玉(83년 法大卒·서울가정법원판사)=최근 변호사 개업. (주소·서초구 서초동 1714의35 서울빌딩 401호. 전화·537

-4004)

▲崔鍾煥(5기 AMP·삼환그룹 명예회장)=최근 건국대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음.

▲李清勝(9기 AIP·한국폴라 대표이사)=최근 창립11주년 기념행사로 정신박약을 돕기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함.

▲鄭壯皓(14기 AMP·前LG텔레콤사장)=최근 저서 「인재경영과 가치경영」을 출간함.

▲朴寬用(18기 ACAD·국회의원·ACAD同窓會長)=최근 동아대학교에서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받음.

▲許大梵(28기 AMP·국회의원)=최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모임」 회원들과 함께 육군 1사단 수색부대에서 전방임소 훈련을 받음.

(정리=盧志元기자)

행사·출간

▲白樂院(51년 醫大卒·인제대 총장)=최근 동명정보대학에서 열린 「제1회 부산 자원봉사 지도자대회」에 참석, 「자원봉사자와 시민의식」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함.

▲盧隆熙(52년 法大卒·정주장학회이사장)=최근 15명의 대학생에게 총5천9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함.

▲林錫珍(56년 文理大卒·한국해럴드학회이사장)=최근 「칸트의遺稿에 나타난 절대관념론의 맹아」란 제목으로 발표회를 개최함.

▲孫章純(58년 文理大卒·소설가)=최근 중년의 세대가 일상적 삶에서 일탈하려는 욕망과 허무를 다룬 창작집 「두 개의 얼굴」(문화공간刊)을 펴냄.

▲張得成(58년 文理大卒·플랜



華 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신영석 군(94년 人文大卒)·이경숙 양=4월 19일 오전 11시.

*곽 훈 군(89년 社會大卒)·임숙정 양=4월 19일 오후 12시30분.

*이호준 군(91년 師大卒)·황혜자 양=4월 19일 오후 2시.

*이범희 군(91년 工大卒)·하정희 양=4월 19일 오후 3시30분.

*이승엽 군(91년 社會大卒)·고영민 양=4월 20일 오후 2시.

*이용동 군(88년 社會大卒)·이계숙 양=4월 25일 오후 1시.

*강민석 군(87년 自然大卒)·차운정 양=4월 26일 오후 12시30분.

*윤지환 군(93년 工大卒)·신현희 양=4월 26일 오후 2시.

*이재호 군(91년 自然大卒)·김주아 양=4월 26일 오후 3시30분.

*강창현 군(94년 醫大卒)·강미숙 양=4월 27일 오후 3시30분.

*한동욱 군(94년 自然大

卒)·이은정 양=5월 1일 오후 1시.

*허승현 군(94년 工大卒)·성경지 양=5월 3일 오전 11시.

*문호상 군(91년 人文大卒)·최운정 양=5월 3일 오후 12시30분.

*배태석 군(94년 工大卒)·이지수 양=5월 4일 오전 11시.

*구태훈 군(95년 農生大卒)·임소연 양=5월 4일 오후 12시30분.

*서용석 군(87년 工大卒)·조혜경 양=5월 4일 오후 3시30분.

*문준호 군(95년 美大卒)·강은하 양=5월 5일 오전 11시.

*박종학 군(88년 自然大卒)·홍경아 양=5월 5일 오후 12시30분.

*김현섭 군(90년 工大卒)·고영주 양=5월 5일 오후 2시.

*김호일 군(93년 自然大卒)·신제니 양=5월 5일 오후 3시30분.

*유재석 군(91년 自然大卒)·현미숙 양=5월 10일 오후 12시30분.

*장원철 군(90년 人文大卒)·허수영 양=5월 11일 오후 2시.

*주영준 군(88년 工大卒)·최진진 양=5월 11일 오후 3시30분.



高 建 국무총리

“정부가 국민의 신뢰 잃은 것 뼈저리게 반성”

知者利廉·至誠感民·日日新이 나의 원칙

지난 3월 4일 국무총리에 임명된 高 建(60년 文理大卒)동문을 만나 학창시절 추억담과 국정운영의 복안 등을 들어보았다.

— 高총리의 정치학과와 환경대학원 재학중 학창생활은 어떠하십니까.

『56년 정치학과에 입학했는데 閔丙台주임교수께서 신입생들에게 정치과에 들어온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정치학과에 입학한 것만큼 정치학을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귀에 안들어와 공부보다는 문리대 학생회장,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학생회 활동에 더 열심이었습니다. 졸업할 때가 되니까 閔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 고시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8년에는 공직생활중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2년 반동안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에 재학했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우리나라의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전되기 시작한 때라 모교에서 좀 더 도시행정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 정치학과 출신으로 고시를 거쳐 행정관료로 진출하셨는데 졸업 후, 정계로 나서실 생각이 없었는지요.

『대학 졸업할 때가 자유당 말기였는데 그때의 극도로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정치에 매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전환, 행정가로 국민에

게 봉사하는 것이 보람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뒤늦게 행정공무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봐도 행정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해야겠다고 한 당시의 생각이 옳았다고 느낍니다.』

— 지금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高총리께서 생각하고 계신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요.

『오늘날 위기의 본질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뢰를 상실하게 된 원인에 대한 뼈를 짚는 자성과 함께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기반성의 토대 위에 정부는 우리 경제 등의 어려운 현실을 국민에게 솔직히 알림으로써 국민과 함께 걱정하고 노력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서로 힘을 모아 시련을 극복해온 민족으로서 우리가 뜻만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오늘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전남도지사, 교통부·농수산부·내무부 장관,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 오랜 공직생활과 명지대 총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민간 부문에서도 풍부한 경력을 쌓으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이 총리직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오랫동안 정부에 봉직하면



서 항상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특히 정부를 떠나 있는 동안은 바깥에서 느낀 점을 정부 정책에 많이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총리로 일하면서 국민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 평소 청렴한 행정관료의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남다른 생활철학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가지 원칙을 갖고 공직생활에 임했습니다. 첫째는 남의 돈을 받지 않을 것, 즉 청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에게 무한대로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공무원이 이권에 개입하거나 돈을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목민심서에 「知者利廉」이란 글귀가 있습니다. 이는 현명한 사람은 청렴한 것이 이롭기 때문에 돈을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知者利廉」의 풍토가 정착되어 공직사회가 지금보다 더 깨끗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둘째는 일을 통해서 능력을 개척하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사운동을 해본 일이 없으며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지성을 다하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지성을 다해 책임을 완수하는 그런 지성 제일주의 자세로 일해 왔습니다. 도지사 때부터 저는 이 말을 「至誠感民」의 자세로 일한다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日日新」입니다. 사회는 하루하루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도 변해야 되고 행정인의 사고도 날로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취임 초부터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생각에 기초한 것입니다.』

— 끝으로 23만 동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 해로 개교 50주년을 맞은 모교가 이제 「민족의 대학」이자 「세계의 대학」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인류의 미래 문명개척에도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서울대를 거쳐나온 우리 동문들은 항상 이 나라에 큰 빛을 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국가발전의 선두에 서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雙)



李義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교수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학술연구회



최근 우리나라 국보 제1호를 바꾸자는 여론이 있었다. 국보 제1호 후보로 단연 1순위였던 것은 바로 「한글」이 었다. 특히 올해는 세종대왕 탄생 6백

주년이 되는 해로서 우리말과 글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일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과학적인 글자로 인정받고 있는 「한글」을 세계화시키기 위해 모인 「한세연구회」의 李義宰(70년 工大卒·한

위한 문체부 후원의 용역사업, 국어연구원 주관의 개정실무위원회 활동, 언론매체 및 컴퓨터 통신을 통한 대 국민홍보 및 교육활동, 내 외국인을 상대로한 설문조사 결과발표회, 매월 정기교양강좌 실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 구성 및 참여방법은.

『전공분야에 관계없이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이면 누구나 입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032-5707-195)를 하시거나 컴퓨터 통신 게시판에 「한세연」 또는 「로마자 표기」 글쇠를 이용해 자료를 검색해보시면 되고 원하시면 인쇄물을 우송해 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행 로마자 표기법 개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4월에 문체부 주관으로 열릴 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해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입

자주성·편의성 갖춘 로마자표기법 추진

국생산기술연구원 교수)회장(사진)을 만나보았다.

－창립 계기는.

『귀중한 유산인 한글을 갖고 닦아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재는 세종 때보다 오히려 퇴보된 상황입니다. 한세연구회는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학술연구회」의 약칭으로 모든 세계인이 말과 글을 쉽게 기록하고 깨우쳐 인류문화 발전에 공헌케 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술적으로 토론하고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순수한 학술모임입니다』

－그동안의 활동은.

『한글 세계화의 첫걸음은 한시적으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비합리적인 현행법을 올바르게 개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국제학술대회 초청발표를 위시해 「실용적인 표기」를

니다. 먼저 우리말의 특성을 살리는 자주정신이 확고하게 반영돼야 하며 사용자의 편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기본 철학에 입각해 개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앞으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활동을 국내외적으로 전개해 궁극의 목적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 일환으로 오는 5월 세종대왕 탄신 6백주년을 맞아 KBS 및 중앙일보 후원으로 「한글의 세계화의 길」이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국민여론을 이벤트 형식으로 환기시킬 생각입니다』

－동문들에게 한말씀.

『우리 동문들이 현 업무에만 매달리기 보다는 국내 최고의 지성답게 각자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도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진정한 지성인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志)



TV의 말도 안되는 표현들

오늘 아침 TV에서 필자는 『즐거운 아침 되세요』하는 인사를 받았다. 나더러 (사람이 아닌) 아침이 되어 달라는군. 신식의 간편한 인사말을 고안해 쓰고 싶어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어법을 어겨서야... 또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변호사가 된다. 대통령이 된다」 대신 「변호사로 (/대통령으로) 된다」고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일어 어법 모방일까?) TV를 보고 앉았노라면 야릇한 표현이 꽤 많이 나온다.

야릇한 일어 어법 모방(?)

시대와 풍속이 변환에 따라 말도 변하게 마련이다. 인간 생활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말이고 보면 말이 생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또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나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가운데는 시대적 요청에서 오는 어휘 변동과 유관한 것들 뿐만 아니라, 언어의 체계 자체에 수정을 가하는 성격을 띤 것들도 소수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의구심을 품게 하고 있다.

전자에 속하는 것들은 「한 언어의 어휘(lexique)」와 관계되는 것으로 「단어의 변동」을 말하는데, 유행어·은어 등을 포함하는 신조어나 외래어의 유입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전문용어로 이른바 「개방목록(inventaire ouvert)」에 속하기 때문에 그 수효가 가변적이어서 아무리 늘어나도 언어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한 세대동안에만도



朴玉堃명예교수

많은 유행어나 은어들이 생겨났다가는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고, 또 컴퓨터가 도입된 이후 얼마나 많은 외래어가 쏟아져 들어 왔는지 모두들 익히 알고 있다.

우리 말 생리 어긋나서야

후자에 속하는 것들은 「토씨」체계와 같이 「닫힌 목록(inventaire fermé)」에 속하는 것들로, 한 언어의 문법적 골격을 이루는 것, 쉽게 말해서 언어의 구문 규칙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어휘의 경우와는 달리 이 경우는 (토씨의 경우처럼) 개개인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유포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구세대에 속하는 우리들 귀에 좀 낯설다고 여겨지는 표현들 가운데 어쩐지 (직관적으로도) 거부감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들은 한마디로 모두 「우리말의 생리」라고 할만한 것에 어긋나는 후자 그룹에 속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도체 산업의 메카

전 제품 美반도체조립協 1등급 인정받아

신의에 바탕 둔 인간중심 경영을 추구해



③ 아남그룹

아남그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업계약 내용을 완수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기술의 아남, 품질의 아남」을 모토로 신의에



金柱津회장

바탕을 둔 인간중심 경영을 추구해 온 까닭이다.

세계 최초로 모든 생산제품에 대해 미국반도체조립협회가 수여하는 1등급상을 수상하는 한편 국내외의 20여개의 권위있는 상을 석권한 아남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인 I사에 1백60만달러의 로열티를 받고 반도체조립기술을 수출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굴지의 회사로 자리잡았다.

자전거부품 수입으로 시작

아남그룹은 金向洙명예회장의 4남4녀 중 네 아들과 만사위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金柱津(54년 法大入)그룹회장은 반도체사업 초기부터 경영에 합류한 창업동지이자 오늘의 아남을 이끈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70년까지만해도 金회장은 미국 펜실바니아주의 빌라노바대 경제학교수

로 있었으나 회사가 위기에 몰리자 6년간의 교직생활을 청산하고 아남산업 미국지사인 암코(AMKOR)사 사장을 시작으로 경영에 뛰어들었다.

69년부터 79년까지 아남산업(주) 고문을 맡아 기술개발, 해외판매를 위해 밤낮으로 세계를 누볐고 80년 아남그룹 부회장을 거쳐 92년 그룹회장에 취임했다.

만사위인 黃仁吉아남산업 사장이 62년 모교 문리대를 나왔으며, 鄭憲泰아남정공사장이 55년 모교 사범대를 졸업한 서울대 동문이다.

아남그룹은 53년 자전거 부품을 수입 판매하던 조그만 무역회사로 출발했다. 56년 아남산업(주)를 설립하고 68년 국내 최초로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아남그룹은 아남산업을 모기업으로 해서 주요 계열사가 10여개에 달하고 해외영업망이 현지법인과 저점, 사무소를 합쳐 모두 20여개나 되며, 90년 이후 필리핀 마닐라에 2개의 현지공장과 라구나 테크노파크에 제3공장을 건설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96년 매출액 2조를 달성하며 세계 3백여개 반도체 회사에 2천여종의 반도체 완성품을 공급, 세계시장에서 3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30억달러를 수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아남그룹은 올해부터 미국 TI사와 기술제휴로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업에 진출, 로직(논리소자)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02년까지 3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金柱津회장은 취임 당시 반도체, 전자, 건설 3개 부문에 주력하던 그룹의



사업영역을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금융, 환경산업 등 21세기 미래사업분야로 다각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오는 2천년까지 현재 그룹 전체 매출액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부문의 비중을 50%로 낮추고 그룹 매출액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천년 매출 10조원 목표

아남그룹은 최근 TRS전국사업권을 획득한데 이어 반도체 사업 착수이래 숙원사업이었던 웨이퍼일관가공(FAB)사업에 진출, 정보통신과 반도체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첨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폐수 및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환경산업과 할부금융 및 증권 등을 포함한 금융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누리살로먼증권사와 한미아남할부금융, 아남환경산업 등을 잇달아 설립했다.

金회장의 미래상은 아남그룹이 단순히 큰 기업이 아니라 「좋은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이 사회적 사명을 인식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어느 한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초일류 기업을 꿈꾸는 아남그룹의 선봉장인 金회장은 「기업은 생명체와 같아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맞춰 부단히 변화하고 적응해 나가야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후배들의 「열린 사고」를 강조했다.

(志)

모교소식

새 인재 4천8백76명 입학

鮮于총장 “전문성과 교양 겸비하자”



모교(총장 鮮于仲皓)는 지난 3월 3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1997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鮮于仲皓총장, 崔松和부총장, 기성회장, 보직교수, 신입생, 학부모 등 2만여명이 참석했다.

鮮于총장은 식사를 통해 『대학은 이제까지 받아온 교육과는 달리 다양한 사고실험과 주견발표에 거의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며 『대학생

활에서 전문성과 교양을 함께 겸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교는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정원외 학생 입학전형에서 재외국민 46명과 외국인 학생 6명을 선발했으며 지난 1월 97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에 지원한 1만6천1백33명 중에서 4천9백2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이들 합격자 중 96명은 미등록으로 합격이 취소되어 97학년도 대학 신입학 등록생은 총 4천8백76명이 됐다.

사범대학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신설

사범대학(학장 黃載璣)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을 개설, 4월 12일까지 외국인 구사가 가능한 대학 졸업자 40여명을 모집했다.

이번 지도자 과정에서는 사

범대와 인문대 어학계열 주관으로 1년동안 한국어 구조에 관한 지식, 한국문화, 한국어 교수에 관한 능력 등을 이수하며, 과정 이수자가 일정한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앞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

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해외 진출 기업체가 현지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교수요원으로 활약할 수 있다.

한국통신

「기초연구센터」기증

한국통신(사장 李啓徹)은 모교가 추진중인 연구공원조성사업에 참여, 정보통신분야 핵심 기반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최첨단 기자재를 갖춘 기초연구센터를 세운다.

한국통신은 산학협동 활성화를 위해 대학내에 공동연구시설을 확보키 위한 모교 연구공원 조성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모교와 정식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8년까지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옆에 지상 5층 규모(총 3천평)의 연구센터를 세워 모교에 기부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다.

99년부터 활용이 가능하게 될 이 센터에는 핵심기초기술 개발을 담당할 기초기술 연구센터, 서비스개발·응용 및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전략기술 연구센터, 위성통신 기술개발을 위한 위성통신기술연구센터와 원격영상강의실, 멀티미디어학습실, 강의실, 교수대기실, 기숙사 및 전시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모교 병원

치과 진료 연장

모교 병원(원장 李迎雨)은 최근 치과 진료시간을 종전 오후 4시에서 7시 30분까지 연장했다.

연장진료를 실시하는 과는 구강진단과, 치과방사선과, 보존과, 교정과, 소아치과 등 5개이다.

수의대 학장에 金善中교수

본부 처·실장단 새로 임명

지난 3월 1일자로 수의과대학장에 수의학과 金善中교수가 취임했다. 신임 金학장은 66년 모교를 졸업, 호주 퀸스랜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80년 모교에 부임해 교육과 학문연구에 전념해 왔다.

본부 처·실장단의 임기 만료에 따라 지난 3월 8일자로 교무처장에 행정학과 金信福교수, 학생처장에 계산통계학과 朴聖炫교수, 연구처장에 원자핵공학과 李銀哲교수가 임명됐다.

신임 金교무처장은 68년 사대를 졸업한 후 70년 행정대학원을 거쳐 73년 피츠버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차학생처장은 68년 공대를 졸업, 75년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자연대 기획

연구실장, 종합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李연구처장은 69년 공대를 졸업하고 76년 메릴랜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91년부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봉직해왔다.

또한 교무부처장에 식품공학과 徐鎭浩(76년 工大卒)교수, 학생부처장에 경영학과 李昌雨(78년 經營大卒)교수, 기획부실장에 의학과 洪性台(79년 醫大卒)교수가 임명됐다.

한편 지난 3월 13일자로 발전기금 상임이사에 경제학부 姜光夏(71년 商大卒)교수가 임명됐다. 이로써 姜상임이사는 당연직으로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직을 맡게 된다.



金信福교무처장



朴聖炫학생처장



李銀哲연구처장



金善中수의대학장



姜光夏상임이사

자연대학

제4회 공개강좌

자연과학대학(학장 張浩完)은 지난 2월 27, 28일 양일간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한국일보사와 공동주최로 「제4회 자연과학대학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變)



3월호를 읽고

총동창회 주최 행사 많았으면...



한번 학교를 떠났다 하면 다시 찾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 우리에게 동창회보는 모교와의 관계를 잘 이어 주고 있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발행부수가 크게 늘어나 편집체제도 그전과는 좀 달라져야겠고 무게있는老교수의 글도 자주 실어 주었으면 한다.

또한 재교육 차원에서 총동창회가 주최가 되어 홈커밍 행사 같은 다양한 행사를 자주 개최해 학교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주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덧붙여 많았으면 자기 전문분야에서 성공한 많은 동문들의 다양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李升雨(57년 商大卒)나 경상사(주)회장

동창회 홈페이지 빨리 개설해야



우리 동창회보가 발간된 이래 가능한한 거의 모든 면을 봐왔다고 생각한다. 여러 면에서 크게 발전했고 매월 10만부를 발행하게 됐다니 가슴 뿌듯함을 억누를 수 없다.

그러나 요즘 연구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회보를 보면 아쉬움을 갖게 하는 점이 있다. 회보의 어느 쪽을 뒤져봐도 인터넷상에서 동창회의 홈페이지 흔적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이 돼야 하듯이 우리 동창회 역시 세계화돼야 한다.

23만 동문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 어디서나 우리 동창회의 홈페이지와 정보 등을 하루빨리 검색해 볼 수 있어야겠다. 金夏鎭(62년 文理大卒)아주대학교수



지구상의 마지막 문화재(?)

60년 후반부터 자수 수집가인 남편을 따라 전국을 무대로 주말마다 지방의古미술상과 알려진 소장가를 찾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나의 직업이 초나 석고를 깎아하는 일과 유관한 탓인지 옛 조각물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고 搗碯문화재인 다듬잇돌과 돌화로의 모양들과 그속에 새겨진 조각과 그림에 매료되어 수집을 시작했다.

이렇게 쌓인 문화재는 5백개를 넘어섰고 그 하중도 15톤에 이르렀다. 그 중에는 각양각색의 길상 문양이 조각됐고 당채로 화려하게 채색된 그림이 그려지는가하면 길상 문자들이 새겨진 것도 많았다. 어떤 것은 조상의 묘비석이 다듬잇돌로 둔갑한 것도 있었다.

묘비석이 다듬잇돌로 둔갑

참으로 훌륭한 문화재였으며 이 다듬잇돌과 돌화로가 90년초 정부 행사로 일본에서 특별전이 열리기도 했다. 그때 참관했던 일본 황실의 세자비로부터

朴永淑(55년 齒大卒)사전치과의원장

귀중한 문화재라는 찬사도 받았다. 그 외 전문가들로부터 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희귀한 문화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보자기 문화가 그랬듯이 이 규방 문화는 일본과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좌식 생활에서 사랑받던 문화였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도침 문화가 소멸된지 1세기 가량이 지났고 남아 있는 다듬잇돌이나 돌화로는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전국에 한 두 개 눈에 띄지만 미학적 가치는 없어 보였다.

우리의 경우도 지금처럼 무관심속에 반세기만 보냈어도 실물은 물론 기억들도 전설로만 남아 있을뻔했다.

내가 수집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규방 문화 연구중 특히 의생활이나 주생활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돌 전후 좌우면의 조각이나 뒷면의 조각들은 그 형태미는 물론이고 민속의 타악기로도 연구의 대상이 될 듯 싶다.



수집을 시작하기는 20여년이 됐지만 기증을 결심한 것은 불과 2년전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미술자료나 규방문화 연구 자료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자수박물관 보다 규모가 큰 박물관을 대상으로 생각해 국립중앙박물관에 민화, 불화, 사인교 등 모두 6백 28점을 기증했다.

딸 출가시키듯 6백점 기증

기증 초기에는 아끼던 유물이라 몹시 서운하고 허전했으나 그 다음은 딸이라도 출가시키듯 부족하다는 마음과 나의 소장품이 혹시 천대라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 끝난 지금의 심정은 할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과 보람의 마음으로 가득하다.

즐겁게 사는 것이 '굶게 사는 것'

李正姬(65년 看護大卒)삼성의료원이사

만성병이라는 불청객의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 만성병은 습관성 질병이다. 하루 이틀에 발병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생활습관이 하루 이를 차곡차곡 쌓여서 병의 씨앗을 키워가는 것이다. 「생활습관이 질병을 부른다」는 제목의 TV방송이 있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생활습관과 질병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금연, 절주, 좋은 식습관, 적당한 운동 등 건강 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 수칙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이러한 건전한 생활습관을 준수하기 어려워지면 「굶고 짧게 살겠다」는 그럴듯한 주장을 표방하며 건전한 생활습관을 포기하고 만다. 그러나 짧게 살겠다거나 길게 살겠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굶게 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익히면 매일 즐거운 아침이 스스로 찾아오고, 금연을 실천하면 흡연욕구로 괴롭지 않고 온종일 가벼운 기분으로 즐겁게 살 수 있게 된다.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해야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병약하다고 해서 일찍 죽고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은 아니다. 침상에 누워있으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10년, 20년을 사는 사람도 수없이 목도할 수 있었다.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질적인 삶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건강한 생활습관은 질적인 삶의 보증수표이다.

정년퇴임교수 프로필

그동안 수고



宋洛憲교수 인문대·영어영문학

가지고 순수하게 대학생활을 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취직준비에 너무 연연해 하는 것 같다면서 요즘 대학이 전반적으로 너무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宋교수는 『앞으로 하루 하루 취미생활을 하며 즐겁게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30년간 영문학 연구에 전력

宋교수는 『변변치 못한 능력으로 이 학교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한 채 정든 교정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퇴임소감을 밝혔다.

1931년 서울에서 태어난 宋교수는 59년 모교 문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66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68년 모교에 부임한 이래 30여년간 영문학 연구에 전력하며 이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으며 최근 목련장을 받기도 했다.

후학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宋동문은 『옛날에는 학생들이 학문에 대한 경이감을



曹大京교수 사회대·심리학

『사람과 사물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고 가꾸고 키우는 태도를 가지라』고 당부했다.

후생복지 제고·후학양성 힘써

曹교수는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57년 모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65년 서독 하이델베르크대 철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66년부터 모교에 재직해온 曹교수는 학생생활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학교 발전과 심리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기획실장 시절, 본부 귀퉁이에 좁게 자리잡고 있어 학생들이 이용하기 불편했던 농협을 학생회관으로 옮긴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曹교수는 아직도 모교의 후생 복지시설이 미진하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최근 국민포장을 받은 曹교수는 후학들에게

생활과학대학 발전기반 다져

40년간 모교에 봉직, 최장기 근속교수라는 영예와 함께 최근 모란장을 받은 林교수는 56년 모교 가정학과를 졸업했다.

개교할 때부터 가정대학에 몸담았던 林교수는 가정대 학생과장, 가정대 학장, 생활과학연구소장, 대한가정학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가정학 분야의 위상 제고와 가정학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특히 사범대 가정학과가 현재의 생활과학대학인 가정대학으로 독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주어진 일에는 늘 최선을 다해왔다』는 林교수는 『비록 관악에서 생활과학대가 하나의 단과대로 자리잡고 있다 해도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林교수는 『아직 우리 체형에 맞는 의복구성이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퇴임 후, 제대로 정리할 계획이라면서 『후배들이 지금까지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가정대학을 더욱 발전시켜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林元子교수 가정대·의류학



田鎔元교수 공대·자원공학

다.

최근 동백장을 받은 田교수는 『현대사회는 물질문명의 발달에 비해 정신문명은 오히려 예전보다 나아지지 못한 것 같다』면서 이를 위해 『신도덕』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 기틀마련

1931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田교수는 54년 모교 광산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석사 학위, 68년 일본 동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60년 모교에 부임한 후 자원공학과장,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장 등을 역임하고 76년 공과대학 교무담당 학장보를 지냈으며 89년부터 91년까지 교수협의회장을 맡기도 했다.

『에너지 자원 신기술 연구소의 기틀을 마련하고 임기내 건설을 마무리할 수 있어 매우 흥분하다』는 田교수는 앞으로 연구와 교육 일선에서 물러나 여행을 많이 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학 연구·모교발전에 기여

차교수는 『나가서 뭔가 계속 해야 한다는 생각도 욕심같고 학문도 그동안은 앞만 보고 파고 들었는데 이제야말로 나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퇴임소감을 밝혔다.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나 57년 모교 사범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차교수는 미국 마이애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63년 노스 웨스턴대에서 교육사회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67년 모교에 부임해 학생생활연구소장을 거쳐 93년 사범대 학장 등을 역임하면서 모교 발전에 이바지했다.

86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바 있는 차교수는 89년 국민윤리학회를 창설, 교육학 분야 발전에도 크게 공헌했다.

차교수는 『서울대인들은 능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그 능력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안정된 자리, 출세에만 집착하지 말고 건설적인 자기 진로를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차容憲교수 사대·교육학

만으셨습니다.

모교에서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교수 11분이 지난 2월 28일 정년퇴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田相範교수 사대·영어교육

국내 영문학 발전에 공헌

田교수는 1932년 평안도에서 태어났으며 59년 모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했다.

미국 콜롬비아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田교수는 이어서 74년 인디애나대 대학원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66년 전임강사로 모교에 부임한 이래 사범대학장보를 역임하면서 학문연구와 모교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최근 국민포장을 받은 바 있다.

田동문은 『겉으로는 세계화를 지향한다는 모교가 교수 임용시 외국학위를 우선으로 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배려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임 후에는 미국에 건너가 영어영문학 연구에 전념할 생각이라는 田교수는 후학들에게 『목표를 정했으면 잡다한 일에 연연하지 말고 묵묵히 밀어 붙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속동물병원 설립에 큰 역할

崔교수는 56년 모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63년 모교 농대 전임강사로 부임한 후 수의대 부설 동물병원장, 수의대학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 석류장을 받았다.

崔교수는 모교 수의대부속 동물병원의 설립과 함께 수의학의 수업 연한을 6년제로 연장하는데 일익을 담당, 수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70년대 열악한 연구 시설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왕진가방을 들고 서울 근교의 목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현장실습을 했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崔교수는 주어진 조건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최대한 활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생활한 것이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한 비결이라고 말했다.

崔교수는 『퇴임 후에도 수의대 부속동물병원에서 진료봉사를 하며 그동안 쌓은 기술을 발휘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의전염병 예방학의 태두

1931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徐교수는 57년 모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68년 농대 조교수로 모교에 부임한 이래 수의대 학장보를 역임했으며, 수의전염병 예방학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겨 최근 석류장을 받았다.

徐교수는 『그저 평생 한 직장에서 큰 사고없이 내 일에 최선을 다해 담당한 심정이지만 떠나면서 못다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퇴임소감을 밝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할 일을 하면서

조용히 지낸 지극히 평범한 생활이었다고 회고하는 徐교수는 『연구, 교육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 뜻대로 안될 때 가장 힘들었다』면서 수의학이 앞으로도 계속 학문적인 빛을 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내 성악교육 위상 높여

李교수는 55년 모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벌린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57년 전임강사로 모교에 부임한 이후, 82년 성악 예술 동인회를 창립하는 등 전공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왔다.

특히 세계적인 소프라노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曹秀美동문의 은사로 잘 알려진 李교수는 국내 성악교육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최근 석류장을 받았다.

李교수는 62년 하버드대에서 성악문헌을 연구하고 귀국, 학교법인 보인학교 이사장을 지내는 등 사회발전에도 일조했다.

저서 『예술가곡서설』에서 『시와 음악의 완전 결합으로 이루어진 예술가곡의 아름다움을 찾아 먼 여로에 나서고 있다』고 자신의 음악인생을 서술한 바 있는 李교수는 퇴임 후, 아름다운 창법과 성악의 기술적 측면에 관한 책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徐鈺洙교수 수의대·수의학

척추외과 분야의 거목

石교수는 『모교에 입학에서 대학을 떠나보기는 레지던트때 미국에서 4년동안 있었던 것 외에는 없으니 대학은 내 집과 마찬가지로』면서 마치 학교를 졸업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1931년 평안남도 순안 출생인 石교수는 58년 모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68년 모교에 부임한 石교수는 척추외과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쌓아 최근 국민포장을 받았다.

『건강과 능력이 다할 때까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봉사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石교수는

는 퇴임 후, 자신이 가르친 척추전문의 4명과 함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설립한 서울척추클리닉 교수로 재직할 예정이다.

石교수는 후학들에게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사명감을 가지라』고 당부하면서 그렇게 하면 자연히 전력투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치과국제대회 유치

1931년 부산에서 태어난 金교수는 54년 모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모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62년 모교에 부임한 이래 66년 치대 도서관장, 70년 치대 교무과장을 거쳐 치과대학장을 역임했으며 71년 치과대학 부속병원장을 지냈다.

金교수는 치대 도서관 정비 등 학교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대한치과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내 최초로 국제규모의 종합학술 회의를 개최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59년에는 국제치과의사협회(FDI) 가입 시, 한국대표로 참석해 국익에 일조했으며 77년 목련장을 받은 바 있다.

金교수는 『시골 병원으로 내려가 치과의료 혜택을 쉽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리=金志妍기자)



石世一교수 의대·의학



문화
단신

新刊

■이승만의 삶과 꿈 —柳永益 著



한국사를 전공한 역사학자 柳永益 (60년 文理大卒·연세대 석

좌교수) 동문이 雲南 李承晚의 생애를 거시적 안목에서 새롭게 조명한 전기를 펴냈다. 梨花莊에 소장돼 있던 개인 문서들을 최초로 입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파란만장했던 이승만의 일생을 약 2백장의 사진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중앙일보사刊·값13,000원)

■벤처기업

나도 할 수 있다

—李光炯 著



KAIST 전산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李光炯 (78년工大卒) 동문이 벤처기업가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게 창업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그 방법을 소개하는 책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은 한 두가지만 전문적으로 파고들어 과감하게 진행하며 가장 중요한 자원인 사람의 마음을 사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아일보사刊·값6,500원)

■세계의

도시조경답사기

—李大雨 著



동일기술공사 조경담당 전무인 李大雨 (77년 環大院卒) 동문이 조경가의 관점에서 세계 10여개국의 도시 생성 과정, 조경 특성 등을 답사 형식을 빌어 알기 쉽게 엮었다. (시간과 공간사刊·값12,000원)

■어느 대령의 이야기

—李在珩 著



홍익대학교 학군단장인 李在珩 (80년 行大院卒) 동문이 30여년간 전후방 전지에서 전우들과

희로애락을 같이했던 군대생활, 미국과 인도의 군사교육기관을 돌아본 소감 등을 한 권의 에세이로 펴냈다. (행림출판刊·값6,500원)

展示

■金載姪작품전

—4월 18일 문예진흥원

한국 여류화가회 회원인 金載姪 (60년 美大卒) 동문이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한국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작품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金동문 특유의 작품세계를 통해 한국적인 「신명」과 「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安興燮기자)



오지탐험 사진작가 俞在洪동문

“문명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진 않아”



베트남 소수민족 파텐족과 함께.

『아프리카의 마사하족, 뉴기니아의 다니족을 방문했는데 그들이 원시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관광객에게 보여주기를 위한 생활의 수단이었고 방문하는데 얼마, 사진 찍는데 얼마를 달라는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많이 실망했습니다』

지구촌 오지만을 찾아 다니며 문명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표정을 카메라 앵글에 담아온 俞在洪 (68년 文理大卒·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동문은 ROTC장교, 생물교사, 무역회사 사원, 학원 강사 등 방문한 지역만큼이나 다양한 경력을 가졌다.

대학시절부터 곤충채집을 핑계로 전국을 휘젓고 돌아다닌 俞동문은 80년대 들어서 해외여행을 시작하게 됐는데 잡지사에서 기사하트를

받아 사진촬영을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 촬영한 사진은 느린 감동을 그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아 金漢容·洪淳泰 (60년 商大卒) 씨에게 사진을 본격적으로 배웠다. 이후 5번의 사진전을 가졌지만 아직도 자신은 여행가이지 사진작가가 아니라고 말한다.

지난 2월에 「광시광에 판야생화」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가진 俞동문이 사진으로 담은 베트남의 광시광봉은 해발고도 3천미터 이상인 인도차이나의 가장 높은 곳으로 중국의 운남성·랴오스와 접하고 있으며 십여 종족이 몇만에서 일십만 규모로 각 부족이 전통문화와 언어를 고집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곳이다.

『높지대나 사나운 짐승은 겁이 났지만 사람이 무섭지

는 않았습다. 의상·문화·언어가 새로웠지 원주민들은 어디선가 본듯한 얼굴과 인간 본연의 순수한 웃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장애를 극복한 것처럼 보이는 문명인의 눈으로 보면 원주민이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늑지대·독충·맹수가 위협하는 정글에서도 운이 좋아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는 俞동문에게 가장 활동하기 어려운 지역은 문명의 혜택을 다 누리는 뉴욕의 뒷골목일 것이다.

자연과 동화된 원주민의 순수함과 자유로운 삶은 문명화된 것만이 인간의 행복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엔 미얀마의 사웁강 지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오지 여행은 너무 힘든 일이지만 할 수 있을 때 해야지요. 유명하고 좋은 관광지는 오지에 갈 수 없을 때 가도 되니까 나중으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항에서 아이들이 자신이 찍은 사진을 표지로 한 포스트카드를 사라고 말했을 때 아주 기분이 좋았다는 俞동문은 이제 막 여행을 마쳤지만 미얀마 여행에 대한 기대로 가득차 있다. (元)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동문여러분께서 내주신 회비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 및 미술전, 음악회, 회보 발간 등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교와 동창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理事:97년 1월 20일~2월 19일 • 一般:97년 1월 7일~2월 26일〉

이 사

◇人文大學

▲박종덕(8)부승정밀전문

◇家政大學

▲박종식(8)前덕성여대교수
▲윤석임(8)꽃나래대표이사

◇工科大學

▲구영창(8)특허청 변리사
▲김대모(8)한국노동연구원장
▲김동규(8)서울시립대교수
▲김병근(8)前국동건설부회장
▲김병진(8)대림ENG 회장
▲김석수(8)동서유지 이사
▲김영수(8)삼우기술단본부장
▲김정근(8)비즈니스서비스
▲김창수(8)부한산업사 사장
▲문광순(8)계면공학연구소장
▲문우택(8)두원정공연구소장
▲문희성(8)에너지협회 고문
▲박덕철(8)화성프랜트 사장
▲박만식(8)충남대 교수
▲박상호(8)前(주)LG고문
▲박승재(8)샘표식품대표이사
▲박인균(8)범창양행 사장
▲박준병(8)대영사(주)사장
▲서문호(8)건국대 교수
▲성기초(8)충남도시가스
▲송명호(8)수도상사대표이사
▲심옥진(8)현대ENG 사장
▲안사은(8)신안정밀 사장
▲안삼덕(8)송추관광개발사장
▲안승일(8)서해도서개발사장
▲안철호(8)범아ENG 회장
▲양현승(8)우대기술단사장
▲오 명(8)동아일보 사장
▲오철석(8)삼능건설상무이사
▲유영주(8)前한전 처장
▲윤 무(8)대림ENG 상무
▲이만철(8)기업은행 부장
▲이범창(8)기아자동차부회장
▲이상룡(8)동원산업 이사
▲이영호(8)중외제약 감사
▲이정렬(8)태진기연대표이사
▲이정목(8)대현기공대표이사
▲이정인(8)서울대 교수
▲임병문(8)경향건설부사장
▲전상백(8)한국종합건축대표
▲정연세(8)(사)한국선급회장
▲정영철(8)건일감정평가
▲정진화(8)지암ENG 사장
▲조병우(8)유풍실업 대표
▲조정희(8)동원ENG 대표
▲조창걸(8)(주)한샘 대표
▲조필제(8)세양주택 회장
▲조항구(8)삼부토건 부사장

▲주재욱(8)세일종합기술공사
▲주포국(8)원자력연구소부장
▲채방은(8)부산지검차장검사
▲최재철(8)특허법률사무소장
▲추지석(8)효성바스프 사장
▲표상기(8)상지상사대표이사
▲한용호(8)대우건설 부사장

◇農科大學

▲김상국(8)세창철강공업대표
▲박정운(8)식품연구개발원
▲성우경(8)두산기술원 고문
▲엄기덕(8)보영양행대표이사
▲오세인(8)아세아종합기계
▲이병하(8)前농협중앙회
▲임영목(8)공영토건전무이사
▲전용화(8)前충남농촌진흥원
▲정구현(8)경기건설진흥공단
▲정기수(8)건국대 명예교수
▲정운환(8)일성화학대표이사
▲한정남(8)비알코리아 사장

◇文理科大學

▲김두희(8)前숙명여대 교수
▲김세준(8)前제일스포츠센터
▲김종대(8)식품약품안전본부
▲박우용(8)신세대제약 대표
▲신우재(8)한국언론연구원장
▲안병화(8)前한전 사장
▲이병호(8)아·태변호사협회
▲이성해(8)정보통신부 실장
▲정병섭(8)前공주봉황중학교
▲정춘수(8)중앙일보 부국장
▲정춘택(8)쌍용경제재 고문
▲조규광(8)憲裁判문위원장
▲한만운(8)前인하대 교수
▲홍사덕(8)국회의원
▲홍종화(8)홍원제지대표이사

◇美術大學

▲강태성(8)이화여대명예교수
▲신수길(8)세종대 교수
▲장윤우(8)성신여대 교수
▲조수도(8)前대우공전교수
▲최경한(8)서울여대 교수

◇法科大學

▲강병호(8)대우무역부문사장
▲강순걸(8)유성물산교역사장
▲고광우(8)변호사
▲권광중(8)서울고법부장판사
▲금진호(8)前법대동창회장
▲김갑현(8)유신학원 이사장
▲김경철(8)변호사
▲김기석(8)前법제처장
▲김덕주(8)변호사
▲김두배(8)한불종합금융대표
▲김영무(8)변호사
▲김영호(8)신아유리공업대표

▲김완섭(8)변호사
▲김용철(8)변호사
▲김윤옥(8)신용보증기금부장
▲김정곤(8)한도ENG 대표
▲김중곤(8)변호사
▲김중웅(8)현대경제사회학
▲김태경(8)변호사
▲김태현(8)변호사
▲김형배(8)동부그룹 회장
▲김희근(8)변호사
▲노승행(8)변호사
▲박성달(8)제육진흥공단
▲박제윤(8)국민대 법대학장
▲박준수(8)서울가정법원
▲박천식(8)변호사
▲박태서(8)제일산업개발회장
▲배 도(8)효성그룹 고문
▲배상오(8)충남대 교수
▲배석필(8)한국어문회 이사
▲변재일(8)변호사
▲서광하(8)상업은행 이사
▲서형석(8)대우정보시스템
▲설동훈(8)변호사
▲성순경(8)前네티다우아 대표
▲송용식(8)지역정책연구소장
▲송재룡(8)농협여의도지점장
▲송종의(8)법제처장
▲신갑철(8)수출보험공사이사
▲신국환(8)삼성물산 고문
▲신동환(8)최신물산 회장
▲신상규(8)대검찰청 과장
▲안 평(8)경일감정평가법인
▲안광구(8)前통상산업부장관
▲안우만(8)前법무부 장관
▲양 영(8)한진 기획실이사
▲양수일(8)경남銀서울본부장
▲양영준(8)변호사
▲여상규(8)변호사
▲오성환(8)변호사
▲오윤덕(8)변호사
▲원우현(8)고대언론대학원장
▲유석원(8)前(주)선경 고문
▲윤동운(8)정보문화센터
▲윤형로(8)파고다 대표이사
▲은승기(8)서울은행 이사
▲이국주(8)변호사
▲이규오(8)前한국제지공업
▲이명구(8)한양대교수
▲이법훈(8)코오롱전자부사장
▲이보환(8)변호사
▲이상형(8)대검 공안2과장
▲이석형(8)변호사
▲이세창(8)썬텍인더스트리
▲이영덕(8)한솔도시락 사장
▲이정락(8)변호사
▲이종석(8)LG그룹 전무
▲이해원(8)한국우드위드대표
▲이환균(8)건설교통부장관
▲임봉규(8)동성건설 부사장

▲임인택(8)금호생명상임고문
▲전순호(8)(주)포스틸 사장
▲정명택(8)변호사
▲정우모(8)태영그룹 부회장
▲정은구(8)삼영익스프레스
▲정지형(8)서울지법원장
▲정태창(8)신일흥산대표이사
▲정취위(8)동림학원 이사장
▲조영식(8)경희학원장
▲지홍식(8)한승철강대표이사
▲진 영(8)변호사
▲채재익(8)중소기업진흥공단
▲전종인(8)농촌진흥청 차장
▲최규철(8)동명중공업 대표
▲최상엽(8)변호사
▲최상현(8)동화은행상무이사
▲최종영(8)대법원 대법관
▲하종선(8)변호사
▲한경구(8)유진상사대표이사
▲한기태(8)정양기획 회장
▲한진우(8)대농그룹 사장
▲허익철(8)변호사
▲현병무(8)배성물산 회장
▲홍인기(8)증권거래소이사장
▲황영선(8)변호사

◇師範大學

▲강상철(8)충남대 교수
▲박종달(8)국제예식장대표
▲박종세(8)아시아 컴 회장
▲신한우(8)경기대교수
▲윤봉련(8)前홍지유치원장
▲장충식(8)단국대 이사장
▲정연우(8)정인테러서날사장
▲조용락(8)변호사
▲최병주(8)산업과학대 교수
▲홍성오(8)대성학원장

◇商科大學

▲강박진(8)대전산업 부사장
▲강신종(8)신세계이통부사장
▲강신중(8)신한리스 사장
▲김광선(8)동구통상 이사
▲김광조(8)세계물산부사장
▲김기주(8)공인회계사
▲김승경(8)중소기업은행장
▲김영규(8)서통상 대표
▲김윤재(8)한국안전유리대표
▲김재철(8)한국전기 부사장
▲김중대(8)대전회력공업회장
▲김현배(8)한미리스 사장
▲민상기(8)서울대 교수
▲박성기(8)제택스대표이사
▲박세만(8)前세양공업사장
▲박중대(8)한국방역산업회장
▲배갑순(8)상도주유소 사장
▲배정운(8)한국철강신문사장
▲설원량(8)대한전선(주)회장
▲성하현(8)한국국토개발사장

▲신동혁(8)한일은행전무이사
▲신복영(8)금융결제원장
▲심대평(8)충남도지사
▲심상은(8)제일은행 부장
▲안경태(8)공인회계사
▲안명수(8)하나파이낸스사장
▲양승현(8)(주)경방 고문
▲윤세국(8)정일개발대표이사
▲윤하균(8)수산스타대표이사
▲윤하섭(8)前우형실업감사
▲이건화(8)이화여대 교수
▲이기용(8)국민신용카드대표
▲이덕훈(8)홍농종묘대표이사
▲이병규(8)한국은행 국장
▲이상기(8)(주)한무개발사장
▲이성렬(8)충무처 공보관
▲이성태(8)한국은행관리부장
▲이승영(8)삼성신용카드사장
▲이재원(8)새한랜탈대표이사
▲이정복(8)정풍상사대표이사
▲이종현(8)덕인양행대표이사
▲이주찬(8)일은증권대표이사
▲이진우(8)(주)대양대표이사
▲이창복(8)농협 신촌지점장
▲이태식(8)제일생명대표이사
▲임병태(8)태평양물산대표
▲장경길(8)서울투자신탁
▲정병호(8)인천한만운송협회
▲정인직(8)서울증권대표이사
▲조대연(8)前국동해상대표
▲조동일(8)조흥증권상무이사
▲차형동(8)쌍용그룹연수원장
▲천제혁(8)한일은행상무이사
▲최성태(8)前제주그랜드호텔
▲한상현(8)삼표산업대표이사
▲허민규(8)경남종합금융시장
▲허성용(8)상산소재대표이사
▲황동규(8)고려상사부사장
▲황창학(8)(주)한진 부회장

◇獸醫科大學

▲김상돈(8)삼양염업 회장
▲이우재(8)국회의원

◇藥學大學

▲강재호(8)신신약국
▲김진우(8)신림당약국
▲남충우(8)영림상사대표이사
▲박종길(8)대웅리(주)이사
▲이계관(8)환인제약전무이사
▲이광수(8)(주)신광신약대표
▲정미화(8)백제약품관리약사
▲진 강(8)의료보험관리공단
▲최정애(8)중경약국
▲최현식(8)중외제약 부사장

◇音樂大學

▲김혜경(8)前서울대 교수
▲백낙호(8)음악협회 이사장

▲윤해중⁵⁵前한양대 교수

◇醫科大學

▲강영민⁶⁹내과의원장
▲고건성⁷⁴이비인후과의원장
▲권오중⁷⁹보라매병원 부장
▲김근우⁶⁷강남병원장
▲김성덕⁷¹서울대 교수
▲김세경⁴⁵한국병원 과장
▲김승협⁷⁹서울대 교수
▲김정곤⁵⁴장안이비인후과
▲김주완⁵³서울대 명예교수
▲김진복⁵⁸서울대 교수
▲나창수⁵³을지병원 부장
▲박기복⁵⁹원자력병원 부장
▲박양실⁶⁰산부인과의원장
▲박재형⁷²서울대 교수
▲박정숙⁵⁴성남중앙병원과장
▲신요철⁶¹지성병원장
▲신창재⁷⁸교보생명 부회장
▲심영수⁶⁹서울대 교수
▲이영⁶³한강성심병원
▲이강훈⁷⁸내과의원장
▲이문호⁴⁶아산의료재단원장
▲이원표⁷⁸내과의원장
▲이율모⁷⁹가야병원
▲이의석⁷⁹이비인후과의원장
▲장돈식⁶²서부병원장
▲장봉린⁶³서울대 교수
▲조광현⁷⁷서울대 교수
▲지삼봉⁶¹대해의원장
▲최진영⁶⁵소아과의원장
▲한용철⁵⁶삼성의료원장
▲홍경표⁷⁸삼성의료원 과장

◇齒科大學

▲김용준⁵⁸치과의원장
▲김윤영⁶²자혜치과의원장
▲김종철⁷⁷서울대 교수
▲박석주⁶⁰치과의원장
▲박용준⁵⁸치과의원장
▲부삼환⁶⁴치과의원장
▲양정강⁶²치과의원장
▲유병도⁶⁰치과의원장
▲윤한석⁶⁴치과의원장
▲이상철⁶¹경희대 교수
▲이준섭⁵⁸치과의원장
▲임봉섭⁵³순천치과의원장
▲임학순⁶²계흥치과의원장
▲장섭창⁷⁷장치과의원장
▲조영수⁸²백상치과의원장
▲최승은⁷⁰치과의원장
▲홍성호⁶⁶치과의원장

◇大學院

▲고성호⁸¹제주대 교수
▲안무혁⁶²한국발전연구원장
▲정상철⁷⁹인천대 교수

◇經營大學院

▲박정남⁷⁴이수건설 상무
▲배무환⁶⁸관동대 교수
▲안대운⁶⁷(주)맥산 회장
▲엄기덕⁶⁹(주)보영양행대표
▲장만기⁶⁸리더쉽매니지먼트

◇保健大學院

▲손경애⁷⁶성모의원장
▲신석우⁶⁷국립의료원약국장

◇司法大學院

▲김기수⁶⁵검찰총장

▲지현범⁶⁴변호사

◇新聞大學院

▲김원기⁶⁸前국회의원

◇行政大學院

▲김재호⁶¹(주)연영통상고문
▲김종인⁶⁴동영알루미늄대표
▲박용덕⁷³통일원 실장
▲신기악⁶⁶(주)세풍 사장
▲신순우⁷⁴농림부검사소장
▲연기호⁷⁰연흥아세아대표
▲윤일균⁶⁹대한항공협회장
▲이계탁⁷²경희대 교수
▲정경모⁶⁷해외선박 회장
▲조상호⁶⁵(주)신원월드회장

일 반

◇人文大學

▲공경희⁶⁷ ▲구영모⁸⁸
▲김동린⁶⁹ ▲김영민⁶⁹
▲김정호⁹⁵ ▲도윤정⁹³
▲변성수⁸⁹ ▲심상완⁸⁸
▲우석균⁸⁸ ▲유승호⁸⁰
▲이수희⁸⁸ ▲이인용⁸³
▲이환성⁹² ▲정은임⁹¹
▲추희엽⁸⁹ ▲하성식⁸⁸
▲함호근⁹³ ▲황은경⁸⁵

◇社會科學大學

▲견익승⁶⁷ ▲김경원⁹²
▲김대중⁸⁸ ▲김연광⁸⁴
▲김재호⁹¹ ▲김준한⁷⁸
▲김태식⁸² ▲김학영⁹⁴
▲박근섭⁶⁷ ▲송호상⁷⁸
▲신세균⁷⁹ ▲안준현⁹⁶
▲엄형섭⁷⁶ ▲오문석⁸⁵
▲이영학⁸⁹ ▲이창화⁹¹
▲이형찬⁸⁶ ▲임형도⁹¹
▲장흥근⁸⁵ ▲전룡배⁶⁹
▲정대영⁸¹ ▲조한욱⁸⁸
▲지영수⁹⁵ ▲한인택⁶⁶
▲홍기두⁷⁸

◇自然科學大學

▲강봉근⁶⁴ ▲김규성⁸⁸
▲김병곤⁹¹ ▲김영권⁹⁴
▲김영욱⁸³ ▲노태원⁸²
▲노해림⁸⁴ ▲손병화⁸⁹
▲신정훈⁸⁷ ▲윤대석⁷⁹
▲이병홍⁷⁶ ▲이지희⁸⁸
▲이찬서⁸⁷ ▲이호규⁹³
▲장지창⁸⁸ ▲조종현⁹⁶
▲홍경환⁶¹

◇家政大學

▲김경자⁶⁶ ▲김영애⁷²
▲김정원⁶⁴ ▲김정희⁹⁴
▲김향숙⁷⁵ ▲민혜식⁵⁶
▲박미선⁸⁶ ▲박희순⁶⁴
▲오명숙⁷⁴ ▲이정덕⁵⁹
▲전임효⁸⁵ ▲정양호⁶³
▲조정애⁶¹ ▲최순옥⁶⁵

◇看護大學

▲김기자⁵⁹ ▲박은숙⁷⁹
▲윤영희⁷⁹ ▲임난영⁷¹
▲조은주⁶³

◇經營大學

▲강문중⁸³
▲김석주⁸⁴
▲박병환⁹³
▲박창수⁸⁷
▲성태홍⁸⁷
▲신용삼⁷⁷
▲이송근⁷⁸

◇工科大學

▲가제순⁹⁴ ▲간대영⁶⁵
▲강광언⁶⁵ ▲강남원⁸¹
▲강영국⁶³ ▲강우식⁵⁸
▲강장신⁶⁴ ▲강창수⁵³
▲강호익⁶⁴ ▲강희동⁷¹
▲고성훈⁸⁹ ▲고정환⁹³
▲고현성⁸⁹ ▲구장희⁶⁵
▲권동일⁷⁹ ▲권성건⁸⁰
▲권순주⁷⁸ ▲권혁주⁷⁸
▲김갑⁶⁶ ▲김경수⁸¹
▲김관식⁴⁹ ▲김광수⁷⁴
▲김기환⁹³ ▲김대현⁷⁴
▲김덕중⁷⁴ ▲김도연⁷⁴
▲김동웅⁷² ▲김동원⁴⁸
▲김명수⁸⁰ ▲김문경⁷¹
▲김병주⁸⁸ ▲김봉렬⁶²
▲김상일⁹³ ▲김선국⁸²
▲김성준⁶⁷ ▲김성환⁸²
▲김영수⁶⁶ ▲김영식⁷⁰
▲김영재⁸¹ ▲김영호⁷⁵
▲김완희⁹⁶ ▲김용호⁷¹
▲김용희⁵⁸ ▲김유간⁹⁴
▲김유성⁵⁴ ▲김윤환⁶⁴
▲김인근⁶⁵ ▲김인식⁶²
▲김재곤⁷⁷ ▲김정근⁶⁵
▲김정원⁹⁴ ▲김종국⁶⁹
▲김종성⁵⁴ ▲김종현⁶¹
▲김종환⁸¹ ▲김주민⁹⁵
▲김주한⁹³ ▲김종일⁹³
▲김진욱⁹⁰ ▲김찬수⁸²
▲김창구⁹² ▲김치홍⁵³
▲김태경⁹⁵ ▲김현태⁷⁸
▲김호식⁷¹ ▲나경호⁷⁶
▲남광문⁶⁵ ▲남군현⁵³
▲남기동⁴³ ▲남복규⁷⁶
▲남준현⁷⁹ ▲노광⁸¹
▲노규환⁶² ▲노승택⁶⁶
▲노원섭⁵⁹ ▲류승문⁷⁵
▲문종윤⁹⁵ ▲문희철⁷²
▲박건우⁶⁴ ▲박명식⁷⁸
▲박봉규⁷¹ ▲박상구⁷²
▲박상언⁷⁵ ▲박성수⁷⁶
▲박성훈⁸⁰ ▲박신지⁶⁴
▲박여종⁷² ▲박영하⁶⁴
▲박용운⁶³ ▲박원규⁵²
▲박정남⁷³ ▲박종범⁷⁶
▲박준배⁹³ ▲박찬빈⁶⁶
▲박희수⁵⁸ ▲봉주희⁹⁴
▲부장원⁹⁶ ▲손근식⁷¹
▲손영란⁹⁵ ▲송만립⁶⁷
▲송유덕⁷⁰ ▲송재준⁹³
▲송현석⁶⁶ ▲신동준⁸³
▲신동현⁴⁹ ▲신동효⁷⁷
▲신승원⁹⁵ ▲신정부⁶⁵
▲신종필⁷⁷ ▲신현묵⁴⁸
▲신희섭⁸⁸ ▲심호섭⁸⁹
▲안기원⁷⁰ ▲안세훈⁶⁵
▲안영철⁵⁸ ▲안제성⁹²
▲안종선⁹¹ ▲양갑⁷²
▲양원호⁶¹ ▲양해안⁷⁴
▲염기현⁵⁵ ▲여태정⁹³
▲오무강⁶⁹ ▲오열근⁶⁴

▲오옥수⁷²
▲오화성⁷⁷
▲유기혁⁶⁹
▲유세중⁶⁴
▲윤석민⁶⁷
▲윤용섭⁹⁰
▲윤원영⁸²
▲윤홍구⁷⁰
▲이강우⁷³
▲이경수⁹³
▲이광민⁶³
▲이기백⁴⁷
▲이동수⁶⁶
▲이무석⁹⁴
▲이민우⁹¹
▲이병무⁶⁵
▲이병하⁷³
▲이상춘⁷²
▲이상훈⁹⁵
▲이우윤⁶²
▲이재경⁹²
▲이준성⁹²
▲이철환⁸¹
▲이희영⁷¹
▲임승근⁶⁷
▲임채경⁷⁵
▲장재원⁹⁴
▲장효섭⁶⁶
▲전규창⁹⁴
▲정광섭⁹²
▲정규만⁴⁷
▲정부영⁹⁴
▲정숙철⁶²
▲정영우⁶⁸
▲정운섭⁹⁴
▲정진삼⁶⁵
▲정창도⁹⁵
▲정철수⁷⁵
▲조득호⁷¹
▲조지성⁹¹
▲지인상⁸¹
▲차기원⁷²
▲최훈⁶⁷
▲최문식⁶⁸
▲최성열⁷⁴
▲최승호⁹⁶
▲최영식⁵⁶
▲최홍수⁷⁵
▲최희정⁶⁵
▲한만섭⁵⁴
▲한석원⁹⁰
▲한승국⁸³
▲한정섭⁵⁵
▲한호동⁵⁶
▲허선무⁷³
▲허진욱⁸⁵
▲홍성표⁷¹
▲황선옥⁵⁵
▲황정원⁹⁴

▲오재일⁶¹
▲우경녕⁸³
▲유병태⁸⁰
▲유정철⁵⁸
▲윤수원⁶⁷
▲윤용진⁸⁷
▲윤주영⁸⁷
▲은준표⁴⁹
▲이건채⁶⁵
▲이경형⁴⁷
▲이광호⁷⁰
▲이동선⁶¹
▲이명성⁷⁸
▲이민석⁹³
▲이병렬⁶⁸
▲이병오⁷¹
▲이상우⁸¹
▲이상화⁸⁶
▲이성훈⁷⁷
▲이인호⁸⁶
▲이재윤⁹²
▲이준상⁷¹
▲이준희⁶⁹
▲이화흔⁷⁸
▲임병진⁸⁸
▲임영섭⁸⁰
▲장덕환⁵⁷
▲장홍래⁷⁵
▲전경석⁹⁰
▲전영국⁶⁶
▲정광용⁶⁴
▲정대현⁹⁰
▲정석균⁸⁹
▲정영균⁸⁵
▲정용태⁶³
▲정은성⁹⁶
▲정찬영⁵⁸
▲정창호⁹⁶
▲정현만⁶²
▲조상연⁹⁴
▲주영렬⁷⁶
▲진대제⁷⁴
▲채명규⁶⁹
▲최강등⁶⁹
▲최상혁⁶³
▲최성현⁷⁵
▲최원은⁴⁸
▲최홍식⁶³
▲한경호⁸²
▲한상훈⁸⁹
▲한수남⁶⁵
▲한은균⁶⁵
▲한철중⁵⁹
▲허민⁹⁴
▲허영진⁹³
▲홍남표⁵⁹
▲황논문⁸¹
▲황성호⁷⁴
▲황태인⁷⁵

▲김정기⁶¹
▲김종국⁷⁰
▲김종현⁵⁹
▲노상하⁷⁰
▲박관식⁵⁸
▲박승룡⁵⁹
▲박우식⁹⁶
▲박태식⁵⁰
▲박홍락⁶⁰
▲서기호⁶⁴
▲서정락⁶⁰
▲성기준⁸⁹
▲손진규⁸⁹
▲손환규⁶⁸
▲안장환⁶⁴
▲오화영⁶¹
▲유철호⁷¹
▲유호섭⁸⁰
▲이경용⁵⁷
▲이도경⁶³
▲이석봉⁸⁰
▲이인형⁶¹
▲이종호⁷⁰
▲이형주⁷⁰
▲전지영⁸⁷
▲정선옥⁹⁵
▲정태수⁶⁹
▲정희식⁹¹
▲주승종⁹¹
▲최동균⁶³
▲한광우⁷⁴
▲홍석현⁶¹
▲황의충⁶⁶

▲김정환⁶⁶
▲김종문⁵⁷
▲김현욱⁸⁷
▲문효창⁵⁹
▲박남중⁵⁹
▲박영인⁶²
▲박종택⁶⁸
▲박형훈⁶⁰
▲백창영⁷³
▲서병윤⁷³
▲서정운⁶¹
▲성영한⁸⁸
▲손현수⁸⁰
▲심상현⁴⁹
▲오익환³⁹
▲우무일⁶⁸
▲유태희⁶¹
▲이강남⁶⁵
▲이기순⁷³
▲이상훈⁶³
▲이선진⁷³
▲이정명⁶⁴
▲이현태⁹⁵
▲임용택⁶²
▲정문섭⁹⁵
▲정영근⁹¹
▲정현재⁶⁶
▲조원구⁷⁴
▲진창근⁷⁶
▲최희석⁶⁴
▲홍갑선⁵⁹
▲황영자⁶³

▲김정기⁶¹
▲김종국⁷⁰
▲김종현⁵⁹
▲노상하⁷⁰
▲박관식⁵⁸
▲박승룡⁵⁹
▲박우식⁹⁶
▲박태식⁵⁰
▲박홍락⁶⁰
▲서기호⁶⁴
▲서정락⁶⁰
▲성기준⁸⁹
▲손진규⁸⁹
▲손환규⁶⁸
▲안장환⁶⁴
▲오화영⁶¹
▲유철호⁷¹
▲유호섭⁸⁰
▲이경용⁵⁷
▲이도경⁶³
▲이석봉⁸⁰
▲이인형⁶¹
▲이종호⁷⁰
▲이형주⁷⁰
▲전지영⁸⁷
▲정선옥⁹⁵
▲정태수⁶⁹
▲정희식⁹¹
▲주승종⁹¹
▲최동균⁶³
▲한광우⁷⁴
▲홍석현⁶¹
▲황의충⁶⁶

▲강의정⁴⁹
▲고영소⁶⁰
▲곽복록⁴⁸
▲김대만⁶⁰
▲김동신⁶⁹
▲김상하⁷¹
▲김세민⁷⁵
▲김영철⁷¹
▲김용년⁶⁸
▲남석희⁶⁶
▲도홍길⁶⁵
▲박광서⁷²
▲박남훈⁷⁵
▲박상식⁷¹
▲박우석⁷⁰
▲배기성⁶⁸
▲백상기⁷⁰
▲소광섭⁶⁸
▲송규정⁶⁷
▲송주인⁵⁸
▲신종식⁶⁶
▲엄병윤⁶⁴
▲유운선⁵⁷
▲유지철⁷⁵
▲이경문⁶³
▲이덕길⁶⁶
▲이명승⁵⁰
▲이성화⁶²
▲이원우⁶⁶
▲이종한⁶⁹
▲이필숙⁶⁰
▲이희용⁵⁸
▲장세현⁴⁵
▲장화순⁵⁹
▲정광⁶⁶
▲정준은⁶⁵
▲정추희⁶¹

▲강희영⁵³
▲공영일⁶¹
▲김경수⁵³
▲김덕룡⁵⁶
▲김명희⁷³
▲김성무⁶⁰
▲김순길⁶⁵
▲김용남⁶⁷
▲김주철⁶⁷
▲남정길⁶⁵
▲문창석⁶⁸
▲박권상⁵²
▲박도일⁵⁴
▲박수용⁶⁷
▲박재길⁷⁵
▲백낙운⁶⁰
▲서병호⁶¹
▲손정규⁵⁵
▲송인찬⁶³
▲신중성⁷⁴
▲심영호⁶³
▲유순애⁷⁴
▲유종렬⁶⁹
▲이량⁶⁴
▲이금동⁶⁵
▲이명해⁶³
▲이수근⁶²
▲이정호⁷¹
▲이찬용⁶⁶
▲이해석⁶⁵
▲장석환⁶⁶
▲장홍렬⁶⁵
▲전영애⁷³
▲정구순⁵⁵
▲정진일⁶⁸
▲주영태⁶⁴

▲강의정⁴⁹
▲고영소⁶⁰
▲곽복록⁴⁸
▲김대만⁶⁰
▲김동신⁶⁹
▲김상하⁷¹
▲김세민⁷⁵
▲김영철⁷¹
▲김용년⁶⁸
▲남석희⁶⁶
▲도홍길⁶⁵
▲박광서⁷²
▲박남훈⁷⁵
▲박상식⁷¹
▲박우석⁷⁰
▲배기성⁶⁸
▲백상기⁷⁰
▲소광섭⁶⁸
▲송규정⁶⁷
▲송주인⁵⁸
▲신종식⁶⁶
▲엄병윤⁶⁴
▲유운선⁵⁷
▲유지철⁷⁵
▲이경문⁶³
▲이덕길⁶⁶
▲이명승⁵⁰
▲이성화⁶²
▲이원우⁶⁶
▲이종한⁶⁹
▲이필숙⁶⁰
▲이희용⁵⁸
▲장세현⁴⁵
▲장화순⁵⁹
▲정광⁶⁶
▲정준은⁶⁵
▲정추희⁶¹

▲김창호⁶⁶
▲강인섭⁷⁷
▲공재영⁸³
▲김갑성⁴⁷
▲김경동⁸⁰
▲김기용⁶⁸
▲김동혁⁷⁹
▲김병률⁸⁵
▲김영철⁶³
▲김용환⁹³

▲강대건⁶¹
▲고재윤⁵²
▲권명규⁷²
▲김갑철⁷²
▲김관수⁵⁵
▲김나섭⁵⁹
▲김병경⁸⁹
▲김세겸⁶³
▲김완기⁶⁹
▲김재학⁵⁷

▲김창호⁶⁶
▲강인섭⁷⁷
▲공재영⁸³
▲김갑성⁴⁷
▲김경동⁸⁰
▲김기용⁶⁸
▲김동혁⁷⁹
▲김병률⁸⁵
▲김영철⁶³
▲김용환⁹³

▲주혜경⁷²
▲천윤길⁷¹
▲최진⁶⁰
▲최종만⁶³
▲황옥현⁵⁵
▲황하복⁶³

◇美術大學

▲강영수⁶¹ ▲권영숙⁶¹
▲김범⁸⁶ ▲김경애⁷²
▲김동선⁵⁷ ▲김명담⁶²
▲김성연⁷² ▲김영주⁷⁰
▲김정현⁶³ ▲김춘자⁶⁷
▲김충경⁵⁹ ▲민재영⁹⁰
▲박양자⁶⁸ ▲변영혜⁸²
▲변희준⁷¹ ▲서성희⁶⁵
▲신승준⁹³ ▲심정수⁶⁷
▲엄태정⁶⁴ ▲이강자⁶⁴
▲이상희⁶⁴ ▲이성은⁶⁸
▲이주식⁷⁴ ▲이춘만⁶²
▲정광호⁶⁴ ▲정해일⁶⁴
▲조윤⁶³ ▲진송자⁶⁸
▲최병상⁶¹ ▲최예심⁷¹
▲홍경희⁷⁰ ▲홍나희⁶⁷
▲황의정⁹²

◇法科大學

▲강훈⁷⁶ ▲강동호⁶⁶
▲강원규⁵⁴ ▲강원일⁶³
▲강진기⁸¹ ▲강형중⁸⁹
▲공성국⁶¹ ▲권영국⁷²
▲권영세⁸¹ ▲김경호⁷⁵
▲김기현⁶¹ ▲김기형⁸⁶
▲김동찬⁸¹ ▲김상배⁷²
▲김신병⁸⁵ ▲김성원⁵⁰
▲김수철⁶¹ ▲김영상⁵⁹
▲김영욱⁷⁶ ▲김영필⁶⁷
▲김용욱⁶⁴ ▲김용환⁷⁶
▲김인일⁸⁹ ▲김일천⁶⁹
▲김종민⁷² ▲김진기⁷¹
▲김진모⁶¹ ▲김표진⁵⁴
▲김향훈⁹² ▲김홍석⁸⁹
▲노영재⁸² ▲도홍석⁶⁰
▲문장운⁷⁶ ▲민영문⁷⁶
▲박경순⁵³ ▲박범준⁸⁶
▲박보무⁶¹ ▲박윤해⁸⁸
▲박준모⁸⁸ ▲박창현⁷⁷
▲박효상⁶⁹ ▲방용구³⁹
▲배달순⁵⁷ ▲백인기⁵⁶
▲백창수⁸⁰ ▲변재승⁶⁴
▲서영덕⁶¹ ▲서원우⁵³
▲서태영⁷⁴ ▲석동현⁸³
▲손석주⁵⁵ ▲송운재⁵⁹
▲신배식⁸¹ ▲신인식⁷⁸
▲신중대⁷² ▲신진식⁸²
▲안병만⁶⁴ ▲안종혁⁶¹
▲양재식⁸⁹ ▲오성식⁵²
▲오종철⁵⁵ ▲유정현⁶⁶
▲유철형⁸⁹ ▲윤성근⁸²
▲이건행⁸⁵ ▲이관진^{58</}

▲최광대77 ▲최병덕76
▲최병수60 ▲최영진84
▲한영수62 ▲허무정75
▲황병기59 ▲황상구62

◇ 師範大學

▲강현모78 ▲김 인72
▲김경미89 ▲김계희43
▲김광준67 ▲김낙영86
▲김복근55 ▲김삼순40
▲김상일65 ▲김순배45
▲김순실41 ▲김영례39
▲김원규79 ▲김인숙60
▲김재영58 ▲김창호73
▲김철규78 ▲김충식64
▲김태진60 ▲김학수71
▲김혜우69 ▲김호진56
▲김홍동77 ▲남기병56
▲노일양39 ▲노희방77
▲문계동67 ▲박승덕58
▲박승준67 ▲박영배74
▲배동선76 ▲백강현65
▲봉정모76 ▲서운수48
▲송남순69 ▲송혜자60
▲신명자60 ▲신용수57
▲신은식64 ▲신준국77
▲신체식60 ▲심춘섭50
▲안광화69 ▲오길임44
▲우성기81 ▲우용제83
▲유광렬56 ▲윤용섭68
▲윤용재64 ▲윤희옥60
▲윤희원79 ▲이경우49
▲이민호57 ▲이병구43
▲이복련55 ▲이상목57
▲이옥경39 ▲이옥자63
▲이운자46 ▲이재희78
▲이종혁80 ▲이중해46
▲임옥진62 ▲임재홍71
▲장경희74 ▲장석제81
▲전은선51 ▲정만진55
▲정봉화64 ▲정태규76
▲조익선40 ▲조진현61
▲조항덕78 ▲차가원70
▲최석진67 ▲최정현68
▲한문희57 ▲한상덕62
▲허광욱61 ▲홍원기71
▲홍인기58

◇ 商科大學

▲강낙원65 ▲강달중55
▲강봉균69 ▲강인식70
▲구대서63 ▲권영직72
▲김 택56 ▲김관채46
▲김국주68 ▲김길환65
▲김내홍48 ▲김동휘48
▲김범수65 ▲김부규60
▲김승호57 ▲김안웅71
▲김영하65 ▲김영휘59
▲김육한64 ▲김원복75
▲김재진72 ▲김정현63
▲김종갑56 ▲김종창71
▲김주호54 ▲김진화65
▲김창녕56 ▲김태구63
▲김호식73 ▲남국연72
▲도민섭61 ▲문운룡65
▲문태철62 ▲민경양74
▲박대룡57 ▲박만철62
▲박봉흥72 ▲박영철63
▲박정열65 ▲박정호44
▲박종모56 ▲배경일73
▲배재용74 ▲배종민51
▲변원옥55 ▲성기학70

▲성기호64 ▲손근홍70
▲신장환62 ▲심남진53
▲심재강70 ▲안병석52
▲양영환59 ▲오영욱48
▲유명식64 ▲유삼태74
▲유석홍65 ▲유준상54
▲육무수57 ▲윤복현56
▲윤진식56 ▲이경원64
▲이근영72 ▲이대용74
▲이두순59 ▲이무학58
▲이봉길62 ▲이상락71
▲이상훈63 ▲이시하70
▲이자기65 ▲이정보66
▲이창일65 ▲이충신68
▲이충희75 ▲임동관55
▲임호운72 ▲장재기68
▲장현수66 ▲전영덕71
▲정종찬75 ▲조남직63
▲조동희60 ▲최도성74
▲최복렬56 ▲최제현60
▲최진만69 ▲한철수64
▲한홍광68 ▲홍대희74

◇ 獸醫科大學

▲강보규96 ▲구본훈58
▲구현옥90 ▲김성기80
▲김종영82 ▲남궁선61
▲오영유57 ▲윤대규55
▲이경선77 ▲이방환49
▲이성모82 ▲이우영63
▲이정웅58 ▲이종경79
▲이진수75 ▲임인선58
▲정용면57 ▲조석봉61
▲홍순국59

◇ 藥學大學

▲김중화81 ▲김창순89
▲김희배65 ▲노환성61
▲류선민89 ▲엄주오57
▲유원근68 ▲이일영60
▲이정우53 ▲이해돈75
▲정옥자87 ▲조기창68
▲최명자66

◇ 音樂大學

▲박애경59 ▲박정자64
▲박지혜61 ▲안영희89
▲양연섭75 ▲양혜숙72
▲오건식66 ▲이기정66
▲임만규66 ▲전신주71
▲정재운89 ▲최구혜65
▲최용호72 ▲한명희64
▲홍정표59

◇ 醫科大學

▲강희륜59 ▲국형철83
▲권영운46 ▲김구상82
▲김병수61 ▲김병엽56
▲김삼용76 ▲김성수73
▲김영생46 ▲김용섭84
▲김용진75 ▲김우영49
▲김정순60 ▲김종민87
▲노동영61 ▲류백렬88
▲문영규63 ▲민현기51
▲박건녕69 ▲박성희59
▲박영석66 ▲박우윤84
▲박정국66 ▲박찬무47
▲배진기57 ▲송계승80
▲신봉하56 ▲심상운37
▲양희우69 ▲오수정72
▲유방환61 ▲유종근77
▲이건용75 ▲이광진68

▲이덕수61 ▲이명복39
▲이석영96 ▲이영린41
▲이용일60 ▲이운성77
▲이충원82 ▲임영선55
▲임창운78 ▲임채만65
▲장 광79 ▲장관환78
▲장진관68 ▲전규식66
▲주원덕96 ▲차창일70
▲최성준89 ▲최승순60
▲하종원85 ▲한덕중75
▲한문식43

◇ 齒科大學

▲김용철59 ▲김정태74
▲김충배78 ▲민병무80
▲박기호58 ▲박덕상70
▲박춘영60 ▲박홍규77
▲박희운84 ▲서학원80
▲석창인87 ▲손우성81
▲손화진71 ▲송광엽81
▲양상덕83 ▲오인식56
▲윤영준66 ▲윤종구58
▲이대관60 ▲이민구75
▲이종도58 ▲이종호58
▲이충국71 ▲이해준83
▲장영일70 ▲정재영74
▲조시형88 ▲최덕호64
▲최종석62 ▲탁미선희82
▲한보균75 ▲홍삼표78

◇ 大學院

▲고세훈87 ▲김영숙88
▲박명호76 ▲박익환78
▲서명덕77 ▲이명구60
▲정정훈67 ▲최 일72
▲최석문75

◇ 經營大學院

▲김문식69 ▲김상준68
▲김호봉69 ▲양관후72
▲유기홍70 ▲이영희67
▲전우영69

◇ 教育大學院

▲박찬부65

◇ 保健大學院

▲김정수81 ▲박명윤76
▲이영근65 ▲이재희95
▲최환영84

◇ 司法大學院

▲김적승69 ▲정덕장72

◇ 新聞大學院

▲김유원74 ▲서기원70

◇ 行政大學院

▲김태중85 ▲반금환70
▲소중영64 ▲여상환68
▲임종섭77

◇ 環境大學院

▲민봉기83 ▲전상훈86
▲정청조80

◇ 最高경영자과정

▲강광식19 ▲강병산40
▲강상진30 ▲강성모17
▲강정석7 ▲강중현26
▲고용석39 ▲곽연구34
▲구자용32 ▲김 학40

▲김건종38 ▲김광희39
▲김근수38 ▲김동문41
▲김동열40 ▲김병두24
▲김성호4 ▲김수환15
▲김시영39 ▲김여택15
▲김영도23 ▲김영린14
▲김용운19 ▲김용집41
▲김용호23 ▲김을태19
▲김일기17 ▲김재국25
▲김재욱11 ▲김정식39
▲김정운20 ▲김종엽28
▲김주동12 ▲김준영30
▲김진영27 ▲김천수16
▲김철운33 ▲김충한19
▲김현숙34 ▲남정후18
▲박갑동25 ▲박갑용27
▲박병규39 ▲박승서5
▲박영숙31 ▲박준영40
▲박인배30 ▲박호식36
▲박찬엽40 ▲백준기40
▲백문현25 ▲서진희6
▲서월금37 ▲성하삼35
▲성하룡32 ▲신문범23
▲신동호33 ▲신일범29
▲신우철9 ▲양희문39
▲신태범5 ▲우영열16
▲연제원3 ▲우철조12
▲우재영7 ▲이대봉36
▲이광우36 ▲이부식22
▲이맹기3 ▲이석용24
▲이상택40 ▲이원순41
▲이석주21 ▲이재전17
▲이용표36 ▲이종구27
▲이정훈38 ▲이종호27
▲이종철10 ▲이충구38
▲이채연12 ▲전재영37
▲임영훈14 ▲정무호39
▲정남연21

▲정문원7 ▲정상봉24
▲정태일40 ▲정팔도26
▲정필영18 ▲조달호7
▲조관제16 ▲최기원10
▲최상남31 ▲최승주31
▲최종섭18 ▲최형식1
▲최화길34 ▲한석운5
▲한우삼34 ▲한중석27
▲홍광철6 ▲황종연39

◇ 最高산업전략과정

▲강경철5 ▲강경모1
▲강민우5 ▲고문수4
▲고봉훈11 ▲곽문연8
▲곽창욱1 ▲금영웅10
▲김 회2 ▲김관수9
▲김대환11 ▲김민수12
▲김상열10 ▲김서곤11
▲김성철14 ▲김영수3
▲김종국8 ▲김홍중9
▲김희근2 ▲남대우3
▲박기점8 ▲박세신4
▲박준우6 ▲박형국12
▲백준기9 ▲손성기8
▲송병권12 ▲신현교11
▲신홍우5 ▲안병수9
▲양주현4 ▲엄종일2
▲여인석10 ▲오명균12
▲오세희2 ▲윤병철3
▲윤상덕9 ▲이 결4
▲이덕문6 ▲이병만8
▲이승규12 ▲이원영2
▲이정수2 ▲이준각9
▲이해규12 ▲임석재2
▲장광호6 ▲장일재3
▲전영웅8 ▲정병철10
▲정우택5 ▲조석구4
▲조현영5 ▲차동성2

▲최경하7 ▲최영우12
▲최창식11 ▲한경섭10
▲한미학5 ▲한홍섭14
▲홍순겸5 ▲황영석10

◇ 國家정책과정

▲권병태40 ▲김기주38
▲김동주24 ▲김명주28
▲김방임33 ▲김영호40
▲김유복4 ▲김인홍10
▲김재우37 ▲김재홍10
▲김진영32 ▲김형술19
▲민병초13 ▲박기억15
▲박영자33 ▲박태동6
▲방석기16 ▲서대일37
▲성기웅36 ▲성문용24
▲송재인36 ▲안승우38
▲양 갑39 ▲유갑중24
▲윤치오5 ▲이강연27
▲이교용40 ▲이달화24
▲이무영33 ▲이범준3
▲이영기27 ▲이중형28
▲이한정39 ▲이희찬30
▲임용구28 ▲전춘우18
▲전형일12 ▲정시채9
▲조남조15 ▲조주태14
▲조홍규26 ▲지의택13
▲지태욱20 ▲최대용41
▲허화홍28

◇ 高級금융과정

▲구대균7 ▲박영모6
▲박재철4 ▲송규성2
▲이상호2 ▲장석춘7
▲전유철4 ▲정진형1
▲제해세1 ▲조상훈5
▲진병용2 ▲최광휘6

“지금 동창회 신용카드를 신청하세요”

〈발급기간: 97년 2월 1일 ~ 2월 28일〉

법 인

◇ 한국제일제약(주) 李甲烈(57년 藥大卒)=1좌
◇ 쌍용정유 金鮮東(63년 工大卒)=2좌
◇ 동영알루미늄공업(주) 金鍾仁(64년 行大院卒)=1좌

개 인

◇ 社會科學大學 ▲박창우84 ▲조주완93
◇ 自然科學大學 ▲신규승78 ▲신재명88
▲정문철95
◇ 家政大學 ▲조은경59 ▲한상아96
◇ 經營大學

▲강왕수89

◇ 工科大學

▲권종구96 ▲김병학97
▲김희섭93 ▲류명선88
▲심응섭75 ▲양승무70
▲유준만70 ▲최영하88
▲최종철55

◇ 農科大學

▲김정식97 ▲유 황60
▲이병삼96

◇ 文理科大學

▲김원호70 ▲홍성대63

◇ 師範大學

▲정미영86

◇ 商科大學

▲윤귀섭68 ▲허성용58

◇ 獸醫科大學

▲조경중60

◇ 音樂大學

▲이주혜96

◇ 醫科大學

▲안창일57

◇ 齒科大學

▲정경욱85

◇ 大學院

▲오승환66 ▲유홍선82

◇ 最高경영자과정

▲정승태27

◇ 國家정책과정

▲서정권2

◇ 高級금융과정

▲정운순7